

여서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5월
2026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IBK기업은행 남양주지점 거래고객
(주)아이베 강필구 대표

IBK로 국민연금 만나고 일상이 즐거워졌다

국민·공무원·사학·군인까지
4대 연금과 IBK가 만나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IBK로 첫 4대 연금 받거나
IBK로 연금 계좌 바꾸면
최대 6만원의 혜택이

쉽고 편하게 IBK로
든든하게 IBK로

개인금융도 역시, IBK



IBK 앱에서 쉽게, 지점에서 편하게
연금 입금계좌 변경 서비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최대 6만원의 혜택을 받으세요
4대 연금 첫수령 고객 이벤트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3046호(2026.04.15) [유효기간: 2026.12.31]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이벤트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 여성시대 특집
꽃보다 곤충
- 12 이달의 편지
'버스를 기다리며' 외
-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주)아이베 강필구 대표
- 76 코너 속 편지
'쿵 하면 짹' 외
- 109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봄은 짧더라
- 112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봄날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6년 5월 10일 **발행인** (취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박정연, 이용선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콩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설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꽃
보
다



곤
충



김태우 —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연구관

풀색꽃무지, 꽃가루를 옮기기보다
꽃잎 갉아 먹는 것을 더 좋아한다.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은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주변에 화사한 꽃송이가 터지니 저절로 기분이 들뜨는 봄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보고 수도도 떨어 가까운 곳이라도 자주 나들이하고 싶은 요즘, 시간이 부족한 도시인들에게는 아파트 화단도 좋고 걷기 좋은 하천 변이나 생태공원이 있다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전국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산이나 국립공원에 이르기까지 야외조사를 많이 다녀본 저는 꽃을 만나면 꽃에 모인 곤충을 살펴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꽃에는 곤충이 있고 어떤 꽃에는 곤충이 왜 없을까? 우리에게 익숙한 선덕여왕의 일화를 돌이켜보면 모란꽃은 예쁘지만 벌과 나비가 없어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당 태종의 그림을 해석했다지만, 실제로 모란꽃은 꽃잎도 화려하고 꽃가루가 풍부해 곤충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식물학의 아버지 린네(Linne)는 꽃을 식물의 성기로 비유하는 강의로 인기가 많았다고 전해지는데요, 꽃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짙은 향기를 풍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1억 년 전부터 꽃 피는 현화식물과 곤충이 맺어온 상호 조약에 따라 자기 대신 사랑의 전령이 되어줄 화분 매개자(Pollinator)를 유혹하기 위함입니다. 식물은 곤충을 이용해 후손을 잇고 곤충은 식물로부터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들의 공생, 공진화는 자연의 원리인 경쟁과 협력



긴날개여치, 애벌레 시절에 영양분이 풍부한
꽃가루와 꽃술을 뜯어 먹는다.

체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 많은 분이 곤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꿀벌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곤충들이 꽃가루를 옮겨 줍니다. 저는 꽃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니 솔직히 꽃에 온 곤충을 보는 것입니다. 꽃술에 달려들어 온몸에 꽃가루를 마구 묻히는 애꽃벌, 꼬마꽃벌, 가위벌 등 각종 벌들, 꿀벌인 척하는 꽃등에, 꽃가루를 먹

Tip! 관찰법

숨을 죽이고 꽃 옆에서 가만히 3분만 기다려 보세요. 곤충의 눈은 움직임에 민감하므로 화려한 옷보다는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고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의 접사 기능을 활용해 꽃에 다가온 곤충이 뭘 하려는 것인지 관찰하고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보세요.

으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짹짹 하는 꽃하늘소, 얼마나 목말랐는지 긴 주둥이를 내밀어 꽃꿀을 쪽쪽 들이켜는 나비와 나방, 거기다 꽃에 유인된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 몰래 잠복해 있는 꽃게거미와 사마귀까지, 꽃은 하나의 작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에 저는 어떤 자연 다큐를 보는 것보다 재미있게 그들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관찰 장소에 따라 왜 어디에는 곤충이 풍부하고 어디에는 빈약할까요? 우리는 흔히 도시 화단에도 꽃이 많으니 곤충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곤충에게 화단은 화려하지만 먹을 것 없는 잔칫상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눈에 예쁘게 개량된 원예종 식물은 꿀샘이 퇴화하거나 꽃가루가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립공원이나 야산에 가면 그야말로 온갖 곤충을 만나기 쉽습니다.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곤충 다양성이 높은 이유는 그들의

한살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습니다. 즉 곤충은 알-애벌레-번데기-성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단계마다 필요한 먹이 식물이나 사는 장소가 다릅니다. 가령 꽃하늘소가 살려면 성충이 먹는 꽃도 피어야 하지만 애벌레가 먹는 죽은 나무도 쌓여 있어야 합니다. 도시의 환경은 이런 연결고리가 이어지기 어렵지만, 잘 보존된 숲은 곤충들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곤충의 다양성은 곧 지역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인 셈입니다.

꽃하늘소, 꽃가루를 몸에 묻혀 이 꽃 저 꽃 실어 나른다.



장소	관찰되는 곤충의 특징	다양성의 차이 및 원인
도시 화단	배추흰나비, 꿀벌 등	인공 식재와 소음, 농약 사용으로 내성이 강한 소수의 곤충 서식
생태 공원	호랑나비, 부전나비, 꽃등에, 재니등에, 다양한 벌류	자생 식물과 인공 식재한 식물이 섞여 있어 도시보다는 좀 더 풍부한 생태계 형성
동네 야산	꽃무지, 꽃벼룩, 범하늘소, 하늘소붙이 등	식생의 층위 구조 (키큰나무~풀꽃)가 살아 있어 먹이 사슬이 안정적
국립 공원	모시나비, 플색하늘소 등	인간의 간섭이 적고 식생이 다양해 독특하고 희귀한 곤충들이 공존

이번 주말에 가까운 공원이나 야산을 찾았다면 꽃을 보면서 꽃에 모인 곤충도 같이 관찰하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 그저 사람 보기 좋은 꽃들만 심겨져 있는지, 왜 도시에는 곤충이 같이 살면 안 되는지, 꽃에 모인 곤충이 나비인지 벌인지, 그들은 무얼 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의 생명체는 건강하게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지, 꽃송이 주위에서 작은 곤충의 움직임을 관찰한다면 다양한 생각을 펼쳐보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왕성한 생명의 기운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월

여성시대, 100인에게 묻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일들, 여성시대
100인에게 물어봐 주세요.

화

열린 화요일

여성시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수

수요일엔님과 함께

삶의 무게가 버거운 분들
성진 스님, 하성용 신부님과
고민을 나눕시다.

목

남성시대

남자라서 느꼈던 삶의
애환들과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 남성시대 앞으로
보내주세요.

금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소소한 육아 고민과 청소년
자녀와의 갈등이 있으시다면
사연 보내주세요.

토

옆집 변호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법의 울타리
안에서 헤쳐나가 보아요.

토·일

명곡극장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세요.

일

여성살롱

매달 특별한 이야기 손님을
모시고 모든 분야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 | | |
|----------------|--------------------|
| 12 버스를 기다리며 | 38 성인인증서 |
| 16 감사받아 마땅한 분께 | 44 함께 자란 아이들 |
| 20 아빠의 수술 | 49 19분의 기적 |
| 27 부모님과의 여행 | 53 우리 딸 왔나? |
| 32 어느 미용실에 갈까 | 57 나의 계절을 꿈꾸며 |
| 34 전쟁의 공포 | 60 나는 아직 길 위에 있습니다 |



일러스트 | 조신애

Letter 01

버스를 기다리며

애청자



집에 오려면 지하철역에서 시내버스를 타야 합니다. 어찌다 있는 행운의 날에는 육교 건너 버스정류장에 오면 마치 날 기다린 듯이 저만치에서 버스가 슬금슬금 오고 있을 때가 있어요. 속으로 ‘앗싸!’를 연발하면서 버스 기사님께 인사를 크게 하면서 타게 되죠.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버스 시간 검색을 안 하거든요. 그냥 제 발걸음 속도대로 걸어와서 버스정류장 전광판 보고 확인해요. 지하철에서 미리 본다고 안 올 버스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미리 검색했는데 시간이 임박하면 뛰어야 하는 게 싫어서요. 다음 버스 타면 되죠. 놓칠 버스는 내 버스가 아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반면에 버스를 바로 앞에서 놓치는 날에는 길게는 20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날에도 화가 나지는 않아요. 요즘 버스정류장에 온열 의자 있는 거 아시죠. 이 신기한 문물이 추위로부터 우릴 어느 정도 보호해 주거든요. 버스 놓친 김에 거기 앉아서 생각합니다.

‘저 길 건너편에 있는 붕어빵 굽는 냄새가 어떻게 여기까지 퍼져오는 걸까. 붕어빵은 사서 집에 가면 정말 맛이 없는데 난 언제쯤이면 길에서 혼자 붕어빵을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길까. 오늘은 매운 어묵집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아주머니가 한가하시네. 반갑게 두 손까지 끼고 뛰는 저 두 친구는 얼마 만에 만난 걸까. 집에 가면 내 친구 은정이한테 깨톡 해봐야겠다.’

두리번거리며 버스정류장 근처에 볼 것도 생각할 것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도 버스가 안 오면 가방에서 책도 꺼내서 두세 장 정도 읽고 그래도 안 오면 노래도 한 곡 듣고 그러다 보면 버스가 와요. 한참 기다렸기에 그 버스는 또 기다린 대로 반가워서 즐겁게 타는 거죠.

저는 약속 장소에 갈 때도 약속 시간보다 무조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여유 있게 나가요. 대중교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원할 때 딱딱 내 앞에 오는 게 아니니 당연히 여유 있게 나가야죠. 버스든 지하철이든 하나 정도 놓쳐도 전혀 급할 거 없을 정도로 여유를 두고 출발해요. 타이트하게 시간 잡아 출발하고서는 뛰고 조급하고 그거 하기 싫어서요.

그런데 우리 집 아들딸은 버스가 안 오면 그렇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약속 시간 딱 맞춰 나가 놓고서는 말이



예요. 그리고 집에 올 땐 더 이상해요. 집에 오는 게 뭐가 급하다고 버스 안 오는 게 왜 짜증이 날까요? 집 근처 지하철역에 내려서는 메시지가 와요.

<아! 버스 없어! 아 진짜! 버스 방금 갔어!>

기다렸다가 타고 와야지 어찌겠어요. 화난다고 떠난 버스가 다시 오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짜증 날 일이 많은 건지요.

아이들이 너무나 듣기 싫어하는 ‘라떼’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버스 도착 정보 없고 스마트폰도 없던 그 시절엔 그냥 주

야장천 버스 오는 쪽 길만 쳐다보면서 ‘내 버스가 언제 오나’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스마트폰이 없으니 뭐 달리 쳐다볼 게 없었죠. 그러니 버스 오는 쪽 길만 쳐다 보고 있을 수밖에요. 안 볼 때 지나가 버리면 지나간 줄도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교통카드가 있기를 해, 환승이 있기를 해, 버스요금 동전까지 딱 맞게 챙겨 들고 손목시계 보면서 약속 시간 늦을까 봐 발 동동했었더랬죠.

저 고등학교 땐 회수권을 썼었답니다. 용돈 받으면 한 달 치 회수권 먼저 사두고 든든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교통카드 한 장이면 못 갈 곳이 없고 도착지 검색하면 어떻게 가라고 다 알려주고 도착 시간까지 알려주니 이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지요. 그런데 버스 하나 놓쳤다고 뭐 그리 화가 난다는 걸까요. 갱년기인 저도 화가 안 나는데 말이죠.

물론 바쁘디바쁜 현대사회에서 해야 할 일은 많고 가야 할 곳도 많고 어쩔 수 없는 순간들도 있죠. 그래도 화내고 짜증낸들 뭐가 해결되나요. 별거 아닌 일에 툭툭거리는 애들을 보면 ‘지금 내가 한 소리 하면 더 짜증 나겠지?’ 싶어서 입 밖으로 나오려는 말들을 욱여넣습니다.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머릿속에 가득한 이런저런 생각들이 잠을 못 이루게 하기도 하는데요. 당장은 아니지만 기다리면 언젠가 오는 버스처럼 지금은 해결이 안 되지만 조금 기다려보는 거죠. 저만치서 “나야! 해결책~” 하면서 반갑게 부릉부릉 달려올 때까지요. 화, 그거 내지 말고요.

Letter 02

감사받아 마땅한 분께

박창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오 늘은 늘 마주치면서도 정작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던 고마운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 사연을 씁니다.

우리 집은 분당 남쪽 끝자락, 수인분당선 오리역 근처이고요. 직장은 서울 마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5시 30분 알람 소리에 일어나 씻고 아침을 먹고 6시 30분쯤 버스를 타면 8시쯤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참, 아침 6시 30분 전에 버스를 타면 버스요금도 조조할인이 되는 거 아세요? 광역버스 요금이 3,000원인데 600원이나 할인돼서 2,400원이 결제된답니다. 가끔 식사가 늦거나 화장실에서 시간을 허비해 조조할인을 놓치면 별거 아닌데도 괜히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이른 아침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면 한남대교를 지나 순천향대병원 정류장에 내립니다. 거기서 저는 지하철 6호선을 타기 위해 시내버스를 한 번 더 타고 한 정거장 이동해 한강진역 버스정류장에 내립니다. 그리고 지하철로 다섯 정거장을 더 가야 공덕역, 제 직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한강진역 바로 옆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니는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등교 시간과 직장인 출근 시간이 겹치는 7시 30분쯤이면 한강진역 정류장 앞 도로가 늘 차들로 꽉 들어찹니다. 외국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라 그런지 아이들을 등교시키려는 부모님들의 차량이 특히 많고요.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 속에는 외교관 차량과 고급 외제 차들도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제가 순천향대병원 앞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한강진역 버스정류장에 내리려면 버스 기사님께서 두 개 차선을 꽉 채운 고급차들 사이를 뚫고 정류장 쪽으로 버스를 정차해 주셔야 합니다. 순천향대병원 정류장에서 한강진역 정류장으로 가려면 이태원 방향으로 좌회전해야 하는데 정류장 바로 앞이 국제학교로 올라가는 길 입구라서 그 차들 사이로 버스가 들어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정류장이 바로 보이는데도 몇 분 동안 꼼짝 못 한 적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막힌 아침 길을 천사처럼 지켜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교통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예요. 예전에는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 분들이 봉사를 하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도로를 꽉 채운 차들 뒤로 저 멀리 시내버스가 보이면 그분들은 버스가 먼저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손짓으로 유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반대편 차선에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게 그쪽으로 안내해 버스가 정류장에 닿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차량 흐름이 너무 더더 정류장 앞에 공간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정류장에 완전히 대지 못한 채 잠깐 세우게 한 뒤 대기 중인 승용차들을 막아서고는 버스 승객들이 안전하게 내려 정류장까지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니다.

매일 보는 풍경이다 보니 ‘당연한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고, 어떤 날은 봉사하는 분이 서툴러 보인다는 이유로 제가 5분 이상을 허비하게 되면 솔직히 짜증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는 그분들께 해 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매일 아침 그분들의 배려와 희생을 받기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고맙다고 꼭 표현하자’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고급 승용차를 막고 서 계신 교통 봉사자분 곁을 지나갈 때 작은 소리라도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자꾸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물론 교통 봉사자분들은 차량 통제를 하느라 제 인사를 못 듣거나 들어도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버스에서 내리며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크게 인사를 드렸더니 분이 “어서 오세요” 대꾸해 주시

는 겁니다. 처음 보는 낯선 승객인 제 인사에 대답해 주신 것도 감사했지만 그 “어서 오세요” 한마디 덕분에 저는 웃으면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어서 오세요’라고 하신 건지 교통 봉사자분이 든든하게 지켜 주는 안전한 구역으로 ‘어서 오세요’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오늘 하루도 힘내라고 회사로 ‘어서 오세요’라고 하신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한마디 덕분에 저는 싱글벙글 웃으며 공덕역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배려와 희생을 해주시는 분들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곳에서 교통 봉사를 하느라 인사를 못 드리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여성시대’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용산국제학교’ 앞에서 매일 아침 교통봉사를 해주시는 교통 봉사자님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매일 아침 교통 봉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배려와 희생 덕분에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출근하고 안전하게 등교합니다. 두 손 공손히 모아 꾸벅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저는 회사 일 때문에 여성시대를 생방송으로는 듣지 못하고요. 아침 출근 시간에 ‘다시 듣기’로 어제 방송을 듣는 당당이입니다.

Letter 03

아빠의 수술

한수지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도 저는 며칠 동안 ‘아빠가 수술을 한다’는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았지 마음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습니다. 이제 겨우 어른 흉내를 내기 시작한 나이인데 집에서는 여전히 ‘우리 애’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빠가 아프다는 말이 현실이라기보다 뉴스에서 들리는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빠는 늘 ‘괜찮다’가 입버릇이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해도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넘겼고, 일이 힘들어도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라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가 진짜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아빠는 늘 크고 든든했으니까요. 체격이 큰 것도 있지만 분위기 자체가 그랬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아빠가 왔다’ 하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릴 때는 아빠 손잡으면 손가락이 제 손을 다 덮어버려서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아빠 손은 왜 이렇게 커?’ 하면 “네가 작아서 그래~”라고 말하고 웃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번호표를 뽑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보호자 팔찌를 받고 그 과정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목이 바짝 마르는데 물을 마시면 더 떨릴 것 같아서 그냥 삼켰습니다. 엄마 표정이 굳어 있었고 저는 그걸 보며 더 겁이 났습니다. 엄마가 흔들리면 집이 흔들리는 느낌이 드니까요.

아빠는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가 복도를 따라 밀려가는 걸 제가 따라갔습니다. 아빠 발끝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작은 바퀴가 바닥의 이음새를 지날 때마다 ‘덜컹’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아빠는 침대에 누운 채로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보며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요. 그런데 그 말이 저한테는 ‘걱정하지 마’가 아니라 ‘나도 무서운데 너라도 괜찮아야 해~’ 그렇게 들렸습니다.

수술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아빠 침대가 멈추고 간호사 선생님이 확인 절차를 밟는 동안 아빠는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손은 따뜻했는데 그 따뜻함이 더 마음을 찌르더라

고요. 문이 열리고 침대가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가 “가자”라고 했는데 다리가 안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제 몸에서 힘을 빼버린 것처럼요.

의사 선생님은 대략 네 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대기실 의자는 딱딱했고 옆 사람들은 다 자기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고 TV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예능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다가도 멈추고 다시 보내다가도 멈췄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마다 봤고 그다음엔 5분마다 봤고 나중에는 1분마다 봤습니다. 분침이 움직이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분침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칸 움직이는 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중간에 간호사 선생님이 “보호자분 잠깐~”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를 부른 게 아닌데요. 누가 지나가며 수술실 쪽으로 급히 걸어가면 그 발소리만으로도 상상이 시작됐습니다. ‘혹시 우리 아빠?’ 그래서 저는 자꾸 제 생각을 끊어내려고 휴대폰을 켜다가도 바로 껐습니다. 아무것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네 시간 동안 저는 난생처음으로 ‘아빠 때문에’ 울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흐르는 게 아니라 목구멍에서 뭔가가 올라오면서 숨이 막히는 식으로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늘 강했고 늘 해결했고 늘 보호해 줬는데 저는 그

동안 아빠가 ‘아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그냥 아빠였으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사람 같은 아빠. 그런데 수술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수술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바로 기쁘지가 않았습
니다. “잘 끝났습니다”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먼저 “지
금 상태가 어떨까요?”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 같지 않았습
니다. 떨리고 낮고 어른 흉내를 낸 것처럼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는 동안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단어를 하나라
도 놓칠까 봐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그런데 설명의 절반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저 ‘큰 문제는 없다’는 말만 붙잡고 있었
습니다. 그 말 하나에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회복실에서 처음 본 아빠는 정말로 작아 보였습니다. 몸이
작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아빠가 가진 ‘아빠다움’이 잠시 사
라진 것 같았습니다. 기계 소리 사이에서 숨을 천천히 쉬고
있는 사람이 제 아빠라는 사실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저는 아
빠 얼굴을 가까이 보고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요. 아빠가 눈을 뜨
고 저를 보더니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울었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
였는데 그 순간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힘든
몸으로도 저를 위로했습니다.

“야, 괜찮아. 아빠 괜찮다니까. 너 왜 그러냐?”

그 말투가 평소랑 똑같아서 저는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아빠가 지금 누워 있으면서도 ‘아빠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병실에서 아빠 옆을 지켰습니다. 엄마가 기본적으로 계셨지만 저는 “내가 할게~”라는 말을 처음으로 자주 했습니다. 물컵을 잡아주고 빨대를 꽂아드리고 식판이 오면 먼저 먹기 편하게 반찬을 잘라놓고 호출 벨이 울리면 뛰어나가 간호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가 일어나 앉는 것도 한 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습니다.

“아빠, 천천히. 괜찮아. 조금만.”

그런데 그 ‘천천히’가 사실은 아빠를 위한 말이기도 했지만 제 마음을 붙잡기 위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면 저는 먼저 휠체어를 가져오고 발을 내려드리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 순간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상하게도 제 어린 시절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제 자전거 뒤를 잡아주던 장면, 넘어졌을 때 무릎을 닦아주던 장면, 밤늦게 학원 끝나고 나오면 멀리서 손 흔들던 장면. 그때는 제가 작고 아빠가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괜찮지 않은 순간이 있다는 걸.

병실의 밤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도 오가고 검사도 있고 말도 많아서 버틸 만한데 밤에는 소리가 더 선명해집니다. 기계 뻑뻑거리는 소리, 복도를 지나는 카트 소리, 옆

침대에서 들리는 숨소리 그런 소리 사이에서 아빠가 잠들어 있는 얼굴을 보면 저는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아빠 얼굴은 평소보다 더 얇아 보였고 눈 밑은 더 검게 보였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이 손으로 우리를 키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손으로 무거운 것들을 들고 문을 열고 우리 손을 잡고 엄마 손을 잡았겠지요.

저는 요즘 ‘훌륭하다’는 말을 쉽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프고 약해질 수 있는 몸으로 우리에게는 늘 강한 모습만 보여주면서 공부하라고 잔소리도 하고 용돈도 챙겨주고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람답게 키웠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자란 줄 알았는데 그 평범함이 사실은 아빠의 노력 위에 있었던 겁니다.

하루는 제가 너무 지쳐서 병실 창가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밖은 멀쩡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만 멈춰 있는 것 같아서요. 그때 아빠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 힘들지? 고생했다.”

저는 그 말에 또 울컥했습니다. 아빠가 아픈데도 저를 불쌍하게 봐주는 그 마음이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아빠가 더 힘들지...”라고 말했는데 아빠는 “아빠는 괜찮아. 너는 네 인생 살아야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늘 자기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걸 당연하게 받기만 했고 감사하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퇴원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빨리 집으로 가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면서도 병실을 떠나면 불안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아빠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밤에 갑자기 불편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또 ‘괜찮다’라고 말하며 버틸 거라는 걸요. 그게 아빠니까요.

그 일주일엔 저를 조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빠를 ‘늘 강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아빠도 아픈 사람이고 무서운 순간이 있었고 그럼에도 버텨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텨온 시간이 우리 가족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도요.

아빠! 수술실 문이 닫히고 네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아빠는 모르실 거예요. 아빠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줬잖아요. “괜찮다”라고, “울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이제 압니다. 아빠가 괜찮다고 말하는 그 습관이 사실은 우리를 지키는 방식이었다는 걸요. 우리를 이렇게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아직 완벽한 어른이 아니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은 조금은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아빠가 제 손을 잡아주던 날들처럼 이제는 제가 아빠 손을 잡아드릴게요. 아빠가 작아 보였던 그 순간에도 제 마음속 아빠는 여전히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Letter 04

부모님과의 여행

나형주 | 전남 나주시



“여 행은 내년에 가자. 올해는 좀 바쁘잖아.”

“우리 다음에 가자. 다음에 좀 여유가 생기겠지.”

이런 말, 다들 참 많이 해 보셨죠? 사실 저도 매년 그랬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한 번 다녀오자는 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말인데도 막상 실행에 옮기는 건 왜 그리 쉽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요즘 들어 부쩍 버거워하시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작년 이맘때쯤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모시고 다녀와야겠다.’

이왕 모시고 나갈 거 평생 천주교 신자로 살아오신 부모님께 의미 있는 여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 파티마 성지가 있는

포르투갈을 첫 목적지로 정했습니다.

장거리 비행이 조금이라도 편안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언젠간 쓸 날이 오겠지’ 하며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마일리지를 털어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아우르는 여정을 정성껏 계획했죠.

그렇게 항공권을 구매한 지 꼭 일 년이 되던 지난 1월 25일 드디어 부모님을 모시고 리스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 일정의 일행은 단출하게 네 명이었습니다. 올해 고3이 되는 큰딸과 아내에게는 진심으로 미안했지만 이번 여행은 부모님과 저, 중학생인 작은딸 이렇게 넷만 오붓하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출발하기 전까지 제 마음 한편에는 적지 않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무서운 병 ‘중2병’ 환자인 작은딸 때문이었죠. ‘중학교 2학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사춘기의 절정을 지나고 있는 아이가 과연 칠순을 훌쩍 넘기신 조부모님과의 낯선 여행을 잘 견뎌줄까 싶었습니다. 혹여나 유럽의 돌길을 걸으며 툭툭거리거나 식당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여행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막상 여행이 시작되니 제 걱정은 완전한 기우였더군요. 유럽의 낯선 풍경과 시차에 적응되기도 전에 제 딸은 즐겁게 여행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유 없는 짜증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생각보다 잘 움직여줘서 여행이 수월했습니다.

부모님도 아주 만족해하셨어요. 특히 포르투갈 파티마 성지에 도착했을 때는 기적 같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 오신 부모님께 파티마는 단순한 관광지 이상의 의미였는데 인솔자인 저도 모든 것을 알지 못했고 체류 시간도 짧았기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둘러보게 되더군요. 그런데 우연히 마주친 한국에서 오신 수녀님이 성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다고 무려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며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비단 성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의 웅장한 가우디 건축물을 올려다보실 때도 좁고 아기자기한 유럽의 뒷골목을 걸으실 때도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인 ‘베르나베우’를 방문했을 때도 부모님은 소풍 나온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셨어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삶의 팍팍한 무게를 견뎌내시느라 당신들의 세상을 넓힐 기회를 미루고만 사셨던 두 분이 처음 보는 풍경 앞에서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휴대폰 카메라 앞에서 수줍게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보며 ‘정말 모시고 오길 잘했다. 더 지체하지 않고 결단 내리기를 잘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느라 제 몸은 고단했지만 하루 하루 새로운 세상을 눈에 담는 재미에 푹 빠지신 부모님의 모습은 이번 여행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의 매 순간이 기쁘고 뿌듯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과거 제 기억 속의 부모님은 그야말로 ‘슈퍼맨’이자 ‘월

더우면'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세상의 모든 정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았고 어떤 어려운 문제는 척척 해결해 주시던 크고 거대한 산 같은 분들이었죠. 그런데 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부모님은 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꼬부랑글씨가 가득한 안내문 앞에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실 때, 식당의 메뉴판과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며 멍칫하실 때, 호텔방 키가 작동하지 않아 문을 못 여실 때 처럼 말도 안 통하는 낯선 환경 속에서 부모님은 전적으로 저에게 의지하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앞장서서 저를 이끌고 보호해 주셨던 분들이 이제는 느려진 걸음으로 제 보폭에 간신히 맞추며 저의 결정 하나 하나에 온전히 기대고 계신다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우주였던 분들이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을까….’

아이처럼 기뻐하시는 모습 이면에 자리한 부모님의 육체적 쇠락과 나약함을 마주할 때마다 서글픈 감정이 밀려들었고 그제 여행 내내 저를 먹먹하게 했습니다.

여행 도중에 작은딸과 둘만 있을 때 “아빠는 부모님이 그렇게 아빠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되신 것 같아 너무 슬퍼. 그러니까 너도 여행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도와드리고 심통 내지 마” 얘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2월 4일, 그렇게 재밌었고 애뜻했고 또 짧아서 아쉬웠던 열흘 남짓의 짝 찬 일정을 마치고 우리 가족은 무사히 일상의

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작은딸이 고열과 복통을 동반한 장염으로 입원하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자랑을 한가득 늘어놓으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도 많이 흐뭇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나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부모님의 시간과 저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였고 동시에 우리가 함께 온전히 나눌 수 있는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준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사춘기 딸과 칠순의 노부모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걸었던 유럽의 골목길은 제 인생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따뜻한 장면으로 남을 겁니다.

혹시라도 과거의 저처럼 ‘다음에, 내년에’를 속으로 외치며 부모님과의 여행을 미루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감히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부모님의 두 다리가 조금이라도 더 튼튼하실 때, 우리가 모시고 다닐 수 있는 체력이 조금이라도 더 남아 있을 때 바로 지금 용기를 내어 떠나시라고 말입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순수한 미소와 조금은 서글프지만 그래서 더 애뜻한 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만나실 수 있을 테니까요.

Letter 05

어느 미용실에 갈까

이현남 | 서울 은평구 녹번동



집 앞에 단골 미용실이 있다. 집에서 가깝고 가격도 저렴하다. 원장님이 나이가 지긋하신 중년 여성이다. 이곳에서 머리를 자르면 마음이 편안하다. 2년 정도 다녔는데 서비스는 좋은 편도 아니고 나쁘지도 않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말했다.

“당신~ 미용실 거기 다니지 마. 거기 말고 딴 데로 가. 거기 머리를 영 못하는 거 같아.”

아내는 머리 하나로 사람의 이미지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르며 타박했다. 그 미용실에서 해주는 머리 스타일 때문에 내 인물이 죽는다나! 나이가 오십이 넘었는데 갑자기 인물 타령이라니 어리둥절했다. 아내 말은 처음 자를 때부터 별로였는데 갈수록 이상하게 자른다고 점점 성의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나는 잘 모르겠다. 남자 머리는 다 비슷한 것 같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지난달에는 아내가 소개한 A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다. 내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아내는 아주 좋아했다. 가격은 1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그리고 며칠 전 또 머리를 하러 갔는데 A 미용실 문이 닫혀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예전에 다니던 나의 단골 미용실로 가서 머리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말했다.

“거봐~ 이 집이 훨씬 낫잖아.”

‘이게 뭐지? 오늘은 내가 원래 다니던 B 미용실에서 했는데 아내도 구별을 못 하잖아.’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A 미용실이나 B 미용실이나 차이를 잘 모르겠다. 그러나 아내가 자르라는 곳 에 가서 잘라야 하지 않나 싶다. 짧을 때는 ‘내 머리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다투기도 했고 가깝고 저렴한 미용실을 두고 멀고 비싼 미용실에 간다는 것이 여전히 납득은 잘 안되지만 결혼이란 그런 건가 보다. 배우자에게 맞춰주면 가정은 평온 해진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헤어 스타일의 차이를 여성들은 섬세하니까 느낄 수도 있겠지. 게다가 나이 들어가는 남편의 외모에 관심을 가져주니 그저 고마운 마음이다.

결혼하고 5년간은 매일 싸우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다투지 않는다. 영화도 같이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갈 수 있는 사람이 늘 옆에 있다는 것이 새삼 감사하다.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내게 아내는 참 고마운 존재다.

“여보,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만 살자~”

Letter 06

전쟁의 공포

애청자



두 바이에서 딸이 귀국한 지 오늘로 9일째입니다. 딸이 휴가를 마치고 1월 30일에 두바이로 돌아간 지 며칠 만에 상상도 못 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그날부터 온 식구가 좌불안석이었습니다. 모든 촉각은 마스크에 집중되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
니다.

딸이 두바이에 있는 외국계 회사로 이직해 생활한 지 6년 만의 일입니다. 나름 만족하고 즐기며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었기에 멀다는 것 외에는 다른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딸이 귀국하기 전까지 노심초사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혼이 빠진 사람처럼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문자로만 딸의 안부를 묻고 현지 사정을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매스컴에선 연신 폭발 장면과 미사일 쏘아 올리는 영상, 건물물이 붕괴되고, 미사일 파편 조각을 맞아 인명사고가 났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런 기사를 접할 때면 가슴이 두방망이질 쳤습니다.

살고 있는 곳이 비교적 안전한 곳이니 안심하라고 딸은 그 와중에도 오히려 한국에 있는 가족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낮에는 비교적 잠잠하다가 밤이 되면 폭발음이 자주 크게 들려 무서워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공중에서 분해된 파편 조각이 떨어지는 것을 창문을 통해 목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창문이 심하게 흔들려 유리창이 깨질 수 있다는 생각에 창문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두문불출하며 생활한다고 하더군요.

딸의 말대로 딸이 생활하는 곳이 안전지대라고는 해도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 넘어지면 코 닿을 듯한 거리인데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나 어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위험한 곳에 딸이 있으니 애가 땀습니다. 아니, 애가 탄다는 표현으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늘길도 막혀 한국으로 귀국할 방법은 없고 그저 무사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험 지역에 있는 자식을 위해 부모로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기력함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서른이 넘은 딸이지만 제 눈에는 아직 한없이 어린 아기로 보입니다. 딸은 취업을 놓고 졸업하기도 전에 취직해서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런 딸이 의지할 곳 없는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전쟁을 겪고 있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혼자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울까?’ 하는 마음에 더 초조하고 긴장되었습니다. 폭발음이 들리지 않을 때도 트럭이나 오토바이 소리만 크게 들려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 6·25전쟁을 겪은 부모님께 듣고, 매스컴을 통해 보고, 교과서에서 전쟁에 대해 배워 간접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전쟁은 6·25전쟁이 전부이고 더 이상 전쟁을 겪는 일은 없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딸이 미사일이 눈앞에서 날아다니고 우리보다 더 큰 폭발음을 수시로 듣는다고 했습니다. 시뻘건 불이 붙은 파편 조각이 떨어지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광경을 우리 딸이 목격하게 되리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속의 현실에는 우리가 평온하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알 수 없는 것들이 숨어 있는 듯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일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나쁜 일일 때 불러오는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아찔합니다.

다행히 기약 없이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고 회사 측의 배려로 딸은 3월 6일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3시간이나 지연되는 바람에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는 다시 애간장을 녹였다고 합니다. 탑승한 채 여가져기서 들리는 폭발음 속에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기다리는 3시간은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7일간 겪은 전쟁의 공포가 마치 7년 세월처럼 길게 느껴졌다고 하네요.

이제 평화로운 우리나라에 왔으니 큰 소리가 들려도 안심해도 좋으려만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전쟁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어서인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에는 움찔움찔 놀란다고 하니 전쟁의 트라우마가 오래갈까 내심 걱정입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루하루 아무 일 없는 평온한 삶이 이어지는 것이 행복임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딸도 우리 가족도 이제 안정을 찾아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지금도 나락으로 치닫고 나라 간 위협으로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나날로 회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버드나무 가지에 연둣빛이 감도는 봄이 왔듯이 봄바람 타고 세계 평화가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Letter 07

성인인증서

전창규 | 서울 구로구 부일로



우 리 집 가족에 대한 정의는 ‘프렌드십(friendship)’입니다.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의무나 간섭, 통제보다 자발적인 상호 존중을 우선합니다.

아내는 편집디자인 프리랜서이고 저는 신용결제기를 유통하는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주로 집에서 일합니다. 집안 일은 시간이 남거나 지저분하다고 느낀 자가 하는데 주로 제가 밟하고 청소하게 되더군요.

아들은 스물한 살로 전문대 2학년을 맞았습니다. 아들의 성장 과정에서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하고 애가 뛰다 넘어져도 가서 일으키고 잡아주기보다 울타리 밖에서 지켜봐 주고 큰 위험에만 관여했습니다. “의자가 꼭 앉는 거라고 단정하지 마라”는 말은 자주 했어요. 의자는 앉을 수도 있고 받침

대로 쓸 수도 있고 모아서 탑을 쌓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아들은 어린이날에 선물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자아를 갖게 하려 함인데 그러면 자녀가 슬퍼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반대였습니다. 아들은 어린이날이 기다리던 기쁜 날이었고 오히려 선물을 못 받거나 작은 선물에 실망하는 친구를 보며 ‘왜 스스로 모야 장난감을 사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대요.

우리 부부는 어린이날 선물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친인척에게 받는 돈 중 큰돈은 은행에 저축하고 5만 원 이하는 돼지저금통에 넣게 해 어린이날에 쓰게 했어요. 조건은 장난감 상자에 적힌 나이가 아들과 맞으면 OK! 장난감값이 가진 돈을 초과하면 도와주니 아들은 만족. 통장에 넣은 돈은 ‘모전자’ 주식을 7만 원 대에 사서 모아 대학에 들어가면서 매매 권한을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고등학생 때 아들은 청소년센터 일본 교류 행사를 신청했습니다. 차로 1시간 이상 가는 먼 지역인데도 여러 번 사전 교육도 받더니 5일간 일본에 다녀왔고 일본 친구와 사진 공유에 아쉬움이 많으며 사과폰으로 교체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휴대폰 약정 기한이 남았고 비싼 휴대폰을 학생이 쓰는 것은 허세 같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세상을 모를 수 있으니 ‘정 하고 싶으면 휴대폰 구매와 통신비를 스스로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아들은 ‘전단지 알바’를 시작으로 알바를 하더니 사과폰을 장만했습니다. 아들은 최저 요금제를 쓰는데 현재 통신

비는 월 8천 원이라네요. 부모의 통신비 지원을 끊고 얼마 안 되는 용돈으로 어떻게 버텨느냐고 물어보면 아들은 오히려 뿌듯해합니다. 이 일은 아들의 알바 세계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부도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고 성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학원도 두 군데만 다니게 했는데 부모가 원하는 곳과 자녀가 원하는 곳으로 했어요. 단 부모가 권한 곳을 소홀히 하면 전부 포기하는 조건이었죠. 고2 때 성적을 보니 많이 낮더군요. 처참했습니다. 부모가 선택한 학원은 영어인데 그냥 찍어도 나올 성적이라 아들과 상의해 의미 없이 다닌 학원 두 곳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 돈은 가족 외식비로 충당하기로 했죠. 왜냐하면 우리 집은 먹는 것에는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수시 2차로 3바퀴 돌아 발표 마지막 날 저녁에 간신히 본인이 원하는 전문대학에 합격해 다행이었습니다. 등하교는 중고마켓에서 스스로 마련한 전기자전거로 하는데 그런 아들이 작년 12월 갑자기 차를 갖기를 희망하더군요.

“아빠, 이 차는 엔진에 뭐 뭐가 달려서 빠르고, 20만 킬로미터 달렸는데 저렴하게 나왔어. 괜찮지?”

수시로 이러는데 제 귀에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이 수다스러워 평소엔 화목한데 이럴 때는 좀 피곤해요.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너 내년에 군대 가는데 어떻게 할래? 그런 차 사면 정비비가 더 들어. 만 20세에 보험료만 3백 나온다며? 그건 운전하

지 말라는 뜻이야. 절대 안 돼. 차라리 독립하게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지든가.”

저도 반대인데 아들이 뜻을 굽히지 않아 제안했습니다.

“아들, 차 구매는 나도 반대하지만 네가 천만 원을 모으면 아빠가 너에게 맞는 방법을 컨설팅 해줄게.”

제가 한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서 경매도 별도로 배웠는데 ‘자동차 경·공매 제도’도 있더군요. 장단점이 있지만 중고 시세에서 20~30%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아들에게 스무 살에 배울 수 없는 넓은 세상을 알려주고 싶었죠. 아내에게도 일러두었습니다.

“당신 스무 살 때 천만 원 모아본 적 있어? 나도 없어. 나는 그 시절에 돈은 유흥에 탕진했어. 오죽했으면 내 별명이 ‘가불인생’이었다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당시 저는 돈 욕심이 많아 남보다 2~3배 더 벌었지만 자만에 빠져 탕진했고 월급을 한 번 가불했더니 계속 가불하게 돼 저축은 가당치도 않았습니니다.

“당신, 5배수의 법칙 알아? 내가 가진 게 1인데 5를 모으기는 매우 어려워. 근데 5를 모으면 10을 모을 수 있고, 그다음엔 50, 100, 500을 모을 힘이 생겨. 만약 1 가진 사람한테 5가 아닌 50을 모으라고 하면 지레 포기하거나 무리하게 달려서 결국 포기하게 돼. 그러면 나중에는 실패의 기억 때문에 다음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나도 당신처럼 아들이 지금 차 사는 것에는 반대야. 하지만 천만 원을 모으는 데 방점을 찍으려고 해. 천만 원이 완성되면 욕심이 생겨서 더 좋은

차를 사려고 2천이나 5천만 원을 모으려 할 수도 있어. 당연히 모을 수 있어. 천만 원을 모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다 정말 차를 사겠다고 어떻게 할 거야?”

“천만 원을 모으고 나서 차를 산다고 하면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산 차를 몇 번 못 타고 팔아도 후회 없을 거야. 열심히 일해서 천만 원을 마련한 경험은 사업 아이템이 생겼을 때도 포기하지 않게 할 거야.”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아들이 돈 모으는 법과 원하는 게 있으면 포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 바랐어요. 아들은 곧 소소한 알바는 그만두고 돈 되는 알바로 전환해 야간 노래방, 주야간 택배 물류,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배달일 등 무서울 정도로 일하더군요. 저는 한 가지만 강조했습니다.

“아들, 부(部)가 주(主)를 이겨서는 절대 안 된다!”

알바를 재밌어하고 지금 보수를 돈 잘 버는 것으로 착각해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은 제 생각보다 빨리 겨울방학 중에 천만 원을 완성해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만감이 하늘을 찌르더군요. 열심히 일하고 소중한 전기자전거까지 팔아 결연한 자세를 보인 아들의 자세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기특한 것은 최근에 시작한 ‘청년도약계좌’(매월 70만 원 저축 / 용돈 매월 25만 원)는 이율이 좋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별도의 통장으로 진행해 달성했더군요. 약속한 대로 중고차 매매 외에 경·공매 방식과 장기렌트카에서 중도 포기한 차를 승계하는 방법 등을 같이 공부

하며 알려주었습니다.

돈에 대해 우리 집은 관대하지 않아 용돈은 항상 적게 주었고 이렇다 할 이벤트나 큰 선물을 준 적 없지만 빠른 성장에 저도 놀랍고 흐뭇해 처음으로 아들만을 위한 행사를 마련해 트로피와 격려금도 주었습니다. 트로피에는 ‘성인인증서’라 새기고 ‘위 사람은 자발적 의지와 독립적 행태로 성인의 자질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부모의 권한과 동등한 효력이 위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성인으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런 글도 새겨주었습니다. 여기서 성인은 단지 나이가 된 법적 성인(成人)이 아닌 현명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성인(聖人)으로 적었습니다.

아내는 이 일을 지인들에게 자랑하는데 저는 지인이 많지 않아 ‘여성시대’에 자랑 편지를 보냅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아들은 한층 성장할 것이고 ‘아들에게 참견할 수는 없는 박탈권’을 저는 기쁘게 받아들일 겁니다. 최근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너도 집에서 독립해도 되지 않겠냐?”

“아빠, 밖에 나가면 손해야. 집에 이렇게 먹을 게 많고 편히 쉴 수 있는데 왜 독립해? 결혼 안 하고 40살까지는 약삭같이 딱 붙어 있을 거야!”

아들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어찌죠? 월세를 내라고 하면 아들이 나갈까요?

Letter 08

함께 자란 아이들

이광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작 은 연립 단지의 상가 2층 ‘선부 어울’ 지역아동센터는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과 발소리로 분주합니다. 아이들이 편히 머물며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센터의 문을 연 게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들을 만났던 날, 낮선 눈빛을 하면서도 제게 작은 손을 조심스레 내밀어주던 아이들의 모습이 여전히 눈에 선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은호는 제 아픈 손가락 중 하나입니다. 마음에 남는 아이들이 대개 그렇듯 은호도 한때 제 마음을 참 애타게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센터에 들어온 은호는 다른 도시로 현장학습을 떠날 때마다 무리에서 자꾸만 사라지는 아이였습니다. 화려한 축

제가 있었던 여수의 밤거리에서도, 인파로 붐비던 부산국제 시장에서도 은호는 계속 무리를 이탈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특히 부산 여행에서는 저 혼자 다섯 명의 아이를 인솔해야 했기에 그런 돌발행동은 따끔하게 훈계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은호와 2박 3일 숨바꼭질 싸움에서 완전히 녹초가 되어 센터로 돌아온 저는 은호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은호가 지닌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호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광장공포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같은 문제로 학교에서도 상담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를 어려워하던 은호의 모습이 그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지역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아가 이 일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기관 연계 덕분에 은호는 집단상담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의 목표는 당장 광장공포증을 없애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호의 일상이 전보다 편해지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호의 말과 행동을 조심스레 눈여겨보고, 학교에서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갈 때는 부모의 마음으로 소소한 용돈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저의 마음을 아이도 느꼈는지 은호 역시 저를 잘 따라주었습니다. 은호는 센터를 졸업해야 하는 나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센터를 더 다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4 용지 두 장에 센터에 대한 고마움과 간절함이 구구절절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호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센터에서 생활하며 센터 내 최고 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변화는 은호가 센터의 동생들을 돌봐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현장학습이나 숙박 체험이 있을 때마다 은호는 고등학생 봉사자로 참여하여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행동은 조금 느리지만 선생님들의 보조 업무도 살뜰히 수행했습니다. 은호의 평소 표정만 봐도 얼마나 센터를 아끼고 의지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은호에게 센터는 가정 다음으로 따뜻한 ‘아지트’인 것 같았습니다. 대학 입학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로 선발되어 2개월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은호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어른이 되었음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십 대 중반이 된 은호는 현재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호의 꿈은 기관사였습니다. 부산 여행을 가던 날, 처음 KTX를 타보고는 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대전에 있는 철도대학에 입학했지만 학점 문제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무리하게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고 결국 과로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끝내 학업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도 군 생활 부적응과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까지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들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아이가 다시 일어나 몸과 마음을 회복하더니 이제는 카페에서 성실히 제 몫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커피 만드는 일이 적성에 잘 맞는다며 웃는 은호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한 번씩 은호는 저를 보러 먼 걸음을 해줍니다. 언젠가는 제 생일이라며 정성스레 케이크와 빵을 들고 찾아와 수줍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가끔 함께 밥을 먹을 때면 삶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은호를 마주하는 기분입니다. 비록 꿈꾸던 철길 위를 힘차게 달리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은호는 자신만의 길을 스스로 찾아 뚜벅뚜벅 걸어가는 중입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제게는 여러 ‘은호들’이 많습니다. 친구 지갑에 손을 대 걱정을 끼쳤던 아이도 어느새 고마움을 전하는 어른이 되었고, 스승의 날마다 카네이션을 사 오는 다정한 아이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자아이들 세 명이 나란히 출산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아기 옷을 선물하니 잘 키우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겁이 많아 늘 선생님 손을 잡고 화장실에 가던 8살 아이는 벌써 고3이 되어 여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호들’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생명력이 놀랍습니다. 어쩌면 그건 모든 인간이 가진 잠재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센터에 있는 동안 저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모습, 더 넓은 마음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후회할 때도 많았습니다. 만학

도로 사회복지학과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며 지칠 때도 있었고 이론과 현장 사이의 괴리나 충돌이 없었다면 그 역시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얻은 균형감이 지금의 저를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겸임교수 및 실습지도 교수 활동을 하며 후학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핀 선생님들과 봉사자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토요일에도 최저 임금만 받으며 아이들 곁을 지켰던 선생님들, 2년 동안 한문을 가르쳐주신 수급자 봉사자님 그리고 120여 명의 후원자와 운영위원님들은 센터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농사지은 배추로 담근 김치를 주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물심양면 힘을 보태주시는 지역사회 주민들, 네트워크의 힘도 매번 절실히 느낍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마음이 모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도모했고 센터는 이제 마을의 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졸업생들이 감사 인사를 하러 센터에 찾아왔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은 지난 추억에 대해 조잘거리며 모두 들뜬 얼굴이었습니다. 꽃다발을 전해주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우리는 서로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 시간의 온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듯했습니다.

여전히 하루하루가 새로운 도전이지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역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제게 처음 내밀어주었던 그 손, 그 손에 담겨 있던 기대와 불안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Letter 09

19분의 기적

이현옥 | 충북 제천시 청풍호로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아내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평소엔 듣기만 하던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낸 건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믿기 힘든 ‘기적’을 꼭 나누고 싶어서예요.

며칠 전 저는 15년 동안 함께 일해 온 직장 동료 세 명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모든 순간이 참 평화로웠죠. 제주에 도착해 뜨끈한 고기국수를 먹고 식물원을 산책하며 오랜만에 숨을 골랐습니다. 서귀포로 이동하는 길엔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유채꽃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성산 일출봉에서 해돋이를 보기 위해 새벽 일찍 일어나 붉게 떠오르는 해를 보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아주

간절히 빌었죠.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하루를 준비하던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에 찍힌 아이의 부재중 전화 세 통.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심장이 멈춘 것 같아…”

믿기지 않는 말에 이어 구급대원과 통화가 이어졌고 남편이 현재 심정지 상태라 CPR을 진행 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끝으로 통화가 끊겼습니다. 약 20분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박동은 돌아왔지만 현재 혼수상태이며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 6시간이 넘는 이동을 해야 했고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행을 왔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수없이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중환자실에 있었고 면회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심정지 시간이 19분이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엄마였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귀가하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아빠를 희견이가 지켜냈어.”

저녁 식사 후 아이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아침 운동장을 아이가 그날은 웬지 가기 싫어 아빠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아빠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눈동자가 이상하고 무섭게 변했고 입에서는 거품이 계속 나왔답니다. 아이는 망설이지 않고 119에 신고했고 아빠를 바로 눕힌 뒤 구급대가 올 때까지 온 힘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몸보다 두 배 이상 큰 아빠를 바로 눕히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고맙고 대견하고 동시에 오롯이 혼자 그 상황을 견뎌낸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오히려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CPR을 완벽하게 못 한 것 같은데 아빠 괜찮을까?”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더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예전 모습이 아니어도 우리 아빠지? 난 아빠 사랑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동시에 그저 ‘멀쩡하게만 돌아와 달라’고 기도했던 제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이 곁에서 뜬눈으로 긴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의사를 통해 남편의 상태를 들었습니다.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 보통은 심정지가 10분만 넘어도 회복이 어렵고 뇌 손상 정도에 따라 최악의 경우 뇌사 판정까지 받을 수 있는데 남편은 19분이나 심정지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지 5일째 되던 날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6일째에는 산소호흡기를 떼고 가족을 알아보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뇌 손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은 말했습니다.

“아이의 침착하고 신속한 초기 대처가 기적을 만든 겁니다.”

그날의 심폐소생술이 멈춰버린 남편의 뇌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며 생명을 이어준 결정적인 시간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재활 치료를 시작했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다시 웃고 장난치는 평범한 아이로 돌아왔습니다. 아빠에게 ‘목숨값’이라며 게임머니를 요구할 정도로요.

저는 아직도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따스한 봄 햇살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에 여전히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앞으로 재활과 관리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지만 우리 세 가족이라면 함께 이겨낼 것이라 믿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꼭 전하고 싶어요. 기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에 간절한 기도로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의 기적을 만들어준 아들 희건이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자랑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Letter 10

우리 딸 왔나?

애청자



우 리 아버지는 올해 아흔일곱이십니다. 저는 요양원에
서 일하는 간호사이고 아버지는 그 요양원에서 생활
하고 계세요.

출근하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발걸음이 자연
스럽게 그 호실로 향합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문을 열
고 들어가면 아버지는 몇 가닥 남지 않은 흰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리고 퉁퉁 부은 두 발을 모은 채 저를 기다리고 계십
니다. 연세도 많고 기력도 많이 떨어지셨을 텐데 제가 출근하
는 시간에 맞춰 꽃단장하고 앉아계신 모습을 보면 가슴이 저
릿해집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제 봄 햇살이 따뜻하네요.”

두 손을 잡아 드리면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이쁘고 똑똑한 딸 왔네.”

그 한마디에 하루의 힘이 샘솟습니다. 아버지와 저의 인연은 조금 특별합니다. 요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돌보며 지내던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제 책상 앞으로 조심스레 다가오셨습니다.

“간호 선생님,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네, 어르신 말씀하세요.”

“내가 아들만 다섯이고 딸이 없소. 내가 간호 선생님을 하루이틀 본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보니까 마음이 참 고와. 내 수양딸을 해주면 안 되겠나?”

너무도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멧쩍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노...”

그 말이 마음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딸 할게요.”

그날 이후로 어르신은 저를 늘 “우리 딸~”이라 부르십니다.

“우리 딸 왔나?”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친아버지는 제가 아홉 살 때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 래서인지 누군가에게 ‘딸’이라 불리는 건 제게 오래된 그리움 같은 일입니다.

저는 긴 머리를 늘 단정히 올림머리로 하고 다닙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머리할 때 됐네. 여기 보태서 머리하거라.”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 제 손에 꼭 쥐여주시는 겁니다. 지폐 5만 원권을 받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괜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느 날은 퇴근길에 갈치를 사서 가족들과 구워 먹으라며 돈을 쥐여주고 보호자가 가져온 귀한 딸기를 몇 개 남겨두셨다가 “이건 우리 딸 거야. 내가 남겨 놔다” 하며 건네주셨습니다.

아침이면 늘 단정하게 옷을 입고 거실에 반듯하게 앉아 저를 기다리시던 분. 제가 보일 때마다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우리 딸 온다” 하시는 말에 저는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아버지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곧 제가 있는 요양원으로 돌아오셨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거동하지 못하고 이제는 침상에만 누워 계십니다.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던 모습은 보기 어려워졌고, 딸기를 건네던 손은 이제 제 손을 힘없이 잡고 계세요.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제 손 꼭 잡으세요. 제 마음 들리시지요? 이제는 제가 사 드릴게요. 갈치도 딸기도 따뜻한 밥도 제가 해드릴게요.’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마치 딸의

하루가 고되지 않기를, 혹여나 다치지 않기를 걱정하는 진짜 아버지의 눈으로요.

가족은 피로 이어져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양원에서 또 한 분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피가 닿지 않아도 마음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몇 번이고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걸 아버지를 통해 배웠어요.

이제 저는 남은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평범한 하루를 함께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손을 잡아 드리고 이름을 불러 드리고 식사 시간을 챙겨 드리고 오늘 하루 잘 지내셨는지 묻는 일들, 살면서 가장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버지 곁에서 매일 배우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이 손을 놓아드리는 날이 오겠지요? 그날이 오면 저는 많이 울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곁에 제가 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제 삶에 큰 희망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참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따뜻한 손길과 감사한 마음,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 모든 시간을 저는 평생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내일도 저는 출근하면 가장 먼저 아버지의 호실로 걸어갈 것입니다. 문을 열며 조용히 말하겠지요.

“아버지, 우리 딸 왔어요.”

Letter 11

나의 계절을 꿈꾸며

노인숙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돌 이켜보면 내 인생은 늘 ‘다음’을 저당 잡힌 채 존재했습니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발걸음을 옮기는 출근길이 요즘처럼 낯설게 느껴진 적도 없습니다. 다가오는 6월 30일. 달력에 표시된 그 날짜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마침표이자 내가 지켜온 이 자리가 타인의 것이 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한쪽 옆에서 후임자 공채가 한창인 것을 보니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치열하게 이곳을 지켰던가.’ 멍한 정신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으니 많은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남들은 번듯한 직장이라 부러워도 했지만 내게 이 자리는

매일 아침 전장에 나가는 병사의 참호와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근무 기간 내내 단 하루도 가슴 떨리지 않은 날이 없었고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순간, 나의 심장은 콩닥거리다 못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압박감 속에서 수화기를 들면 상대방의 첫 마디에 담긴 서슬 퍼런 기운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원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상담사로서의 전문성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갉아먹는 독이었습니다. 목소리 톤 하나, 단어 하나에서 느껴지는 상대의 날 선 공격성을 감지하는 순간, 머릿속에 가득했던 법률 조항은 하얗게 지워졌고, 익숙한 단어들조차 입안에서 맴돌 뿐 튀어나오지 않아 더 당황할 때쯤 “당신이 뭘 알아?” “공무원이 이래도 돼?” “거기 앉아서 뭐 해?” 쏘아붙이는 민원인들의 고함 앞에서 나는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그저 화풀이 대상인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했습니다. 온몸 가득 화를 품고 민원실로 걸어 들어오는 분들을 보면 눈빛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요동치곤 했습니다. 마치 화낼 대상을 찾은 듯 거칠게 나오는 그분들을 대할 때마다 눈물과 울분을 삭여야 했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내 삶의 뼈대가 되었고, 삭이고 또 삭인 눈물은 가슴속에 딱딱한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민원인들의 피해를 구제해 주느라 정작 내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것은 돌보지 못한 채 저는 그렇게 20년을 묵묵히 버텼습니다. 이제 그 고통스러운 전화벨 소리로부터 해방될 날이 2개월 남짓한데 왜 마음은 이토록 이상하고 공허할까요. 그토록 소망했던 탈출인데 막상 문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도 그건 내 청

춘과 중년의 모든 에너지를 이 작은 책상 앞에 쏟아부었기 때문이겠죠. 이곳은 내가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족의 생계를 이어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던 곳입니다.

정년 후 맞이할 ‘인생 2막’이라는 거창한 단어 앞에 서면 덜컥 겁이 납니다. 전화벨 소리 없는 고요함이 오히려 낯설어 잠 못 이루지는 않을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다짐해 봅니다. 아침 7시만 되면 우는 아이를 억지로 떼어놓고 일터로 향했던 그 지독함으로, 20년을 버틴 그 끈기로 나는 또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6월 30일 퇴근길, 나는 그동안 한 번도 바꿔본 적 없는 휴대폰 벨 소리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평온하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으로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분노를 받아내지 않아도 되는 시간, 내 안의 울분을 다독이고 상처 입은 나를 온전히 안아줄 수 있는 시간, 오로지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진짜 나의 ‘인생 2막’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지나온 세월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봅니다.

“참 고생 많았다. 그 떨리는 가슴으로 20년을 버텨주어서 정말 고맙다.”

이제야 비로소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내 곁에 머물 것입니다. 나의 진짜 인생은 그 지독했던 전화벨 소리가 멈춘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Letter 12

나는 아직 길 위에 있습니다

김대훈 | 충남 계룡시 엄사면



‘내 가 이 길을 잘 선택한 걸까?’
요즘 제 마음속에 가장 자주 머무는 질문입니다. 30년이 넘는 군 생활을 마치고 저는 지금 전혀 다른 길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임관해 전방과 후방을 오가며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 시간은 분명 제 삶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의 그림자에는 늘 보이지 않는 무게가 함께했습니다. 상명하복의 질서, 통제된 일상 그리고 매번 되풀이되는 진급에 대한 압박. 긴 시간 동안 저는 긴장을 놓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결국 말년의 시간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지휘관 보직

을 맡고 있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당직 근무 중이던 한 병사가 조용히 제 앞에서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는 그의 등을 보다가 저는 무심코 한마디를 건넵니다.

“괜찮다고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쌓아두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갈등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불안. 저는 그저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해결해 주려 하기보다 그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어준다는 것은 누군가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그 과정이 제 마음 또한 조용히 치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제2의 인생의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심리상담사의 길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업무를 이어가고 밤에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몸은 지쳤고 마음은 자주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장병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군 문을 나선 뒤에도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경력은 쉽게 인정받지 못했고 나이는 숫자로 먼저 평가



받았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돌아오는 말은 같았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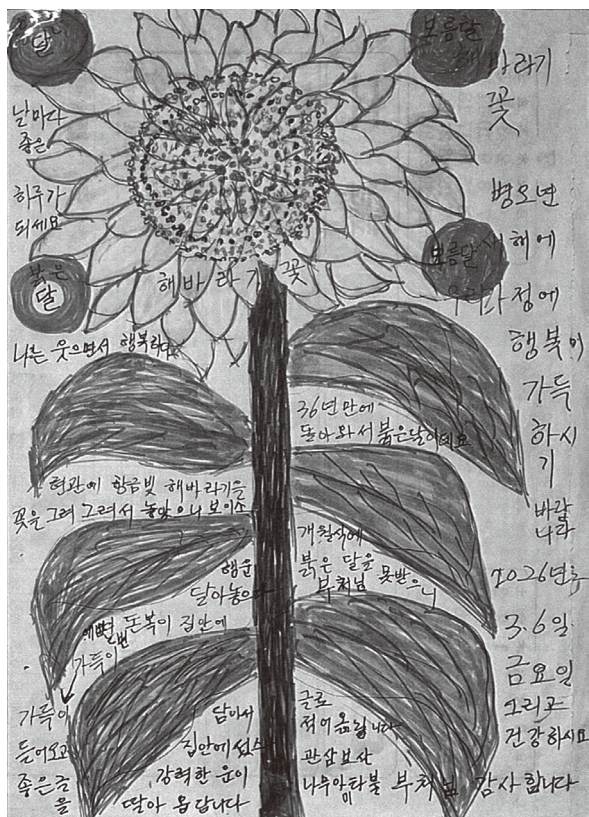
그 말 앞에서 여러 번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말없이 지켜보
던 아내, 괜히 더 밝게 웃어주던 두 딸.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구나. 지금도 저는 여전히 과정 속에 있
습니다. 여전히 도전 중이고 여전히 이 길 위 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은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걸
어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길 위 에 서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히기중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나는 요즘 그림그리기에 푹 빠졌읍니다
 혼자 지내면서 노인 일자리에 갔다가 집에오면
 심심하고 쓸쓸한대 아이들이 바퀴준 핸드폰에서
 영상을 보면서 좋은 것들을 보다가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서 들어오는 문앞에 붙여두면 복어 온다는 걸
 듣고 그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마침 사위가 가져다준 싸인펜과 색연필이
 많았읍니다 좋은 칠지남 달력틀이 많아서
 그 뒷면에 그리기 시작했읍니다
 처음엔 어이 그려야 할까 망망했는데 벽에
 걸린 무영이 시계를 보으려라 그리고 지남해
 햇살에 핀 키 큰 해바라기를 생각하면 그려습니다
 그림을 그리다보니 푹 빠져서 시간이 가는줄도
 모릅니다 정로당에 가면 사람들과 얘기하느라



재미는 있겠지만 혼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잘그리지는 못하지만 단점을

젓어 연필로 멍처 그려놓고 그 위에 싸인펜으로
 다시 그리기도 하고 그냥 칠하고 하고 싶은데로 합니다
 딸과 사위가 왔길에 부영이와 해바라기 그림을
 보여주었더니 잘 그려다고 엄마에게 이런 솜씨가
 있었는지 몰라라고 칭찬을 해주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많이 그려서 방안에 벽화처럼 붙여
 좋은것도 좋겠고 나중에 엄마의 그림을 전시해
 보면 좋겠다고도 합니다 어제는 노인 원자리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집에 놀러왔는데 내 그림을
 보오면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내게 이런 재능이
 있는지 처음 알아라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리고 싶어집니다
 봄이오면 제일 먼저 피는 매화꽃이 예뻐서
 봄오라가 맏흰 매화꽃가 활짝 핀 매화 꽃에
 참새도 한 마리 그려줍니다 그그림틀을 내가
 자는 방에 하나씩 붙여 두었습니다
 집이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벽지에 알록달록
 그려진 그림을 보니 방이 환해지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싶은게 너무 많습니다
 앞산에 진달래도 그려야 하고 키가 큰 접시꽃도

그려보고 싶고 노란 산수유꽃도 향기 좋은 문주란이
 피면 그것도 그려야 겠습시다 제일 먼저 그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몇 년전 작은 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받은 화분을 집에 가져왔는데
 정성을 들여 키웠더니 어른 키만큼 많이 자랐
 습니다 내가 잘 키우면 아들의 사업도 잘
 번창할까 싶은 마음이었는데 내 마음이 달랐는지
 아들이 바쁜거 보니 잘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 화분을 그려서 아들이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에
 걸어두라고 쥐 불까 하는데 좋아하겠지요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
 하고 우울했는데 세월이 약이 맞았는지 하루
 하루 살아가다보니 조금씩 슬픔도 무너지고
 좋은 곳에서 잘 지낸다고 생각하니 기운도
 납니다 자식들도 잘 해주고 재미있는 일도
 생기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행복이지요
 오늘은 또 어떤 그림을 그려 볼까요
 큰딸이 여성시대에 엄마가 그린 그림을 보내
 자랑해 보라고 해서 써 봅니다
 자랑 할만 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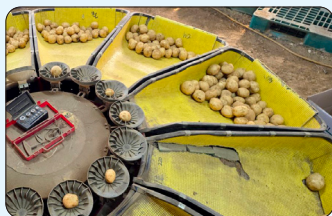
여성시대 사진방



[9456]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이 녹으며 우리 굴삭기가 바빠지는 때입니다.



[8183] 우리 집 닭장입니다. 21일 동안 어미 닭이 품어서 오늘 12마리 병아리들이 부화했어요.



[0222] 경산입니다. 드디어 봄 감자가 나오입니다. 희은 누님 봄 감자로 할 수 있는 메뉴가 뭐가 있을까요?



[8392] 막 나온 부추는 아무도 안 준다고 하지요. 그 정도로 맛도 좋고 몸에도 좋습니다. 저에게 주시려고 부추 뜯는 어머니 찍어 올려요.



[9234] 새벽까지 작업한 작약꽃 한가득 서울 꽃시장으로 보냅니다.



[7280] 참외밭에서 참외 따고 있는데요.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여성시대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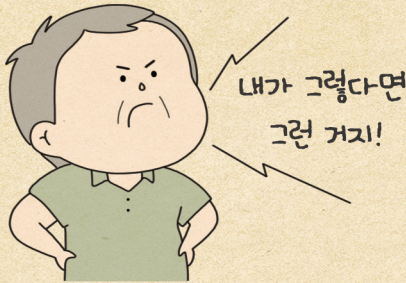
담당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60평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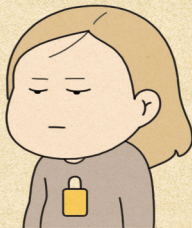
본인 생각이 정답이라 믿고 사신 우리 아빠.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도
되레 화를 내기 일쑤셨지요.



그런 아빠의 투박한 말들은
예민한 성격의 언니에게 특히 비수가 되어 꽂혔고,
언니는 아빠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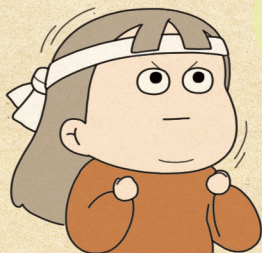
저 역시 사춘기 시절엔
아빠의 모진 말에 상처받아

대학만 가면
이 집을 영영 떠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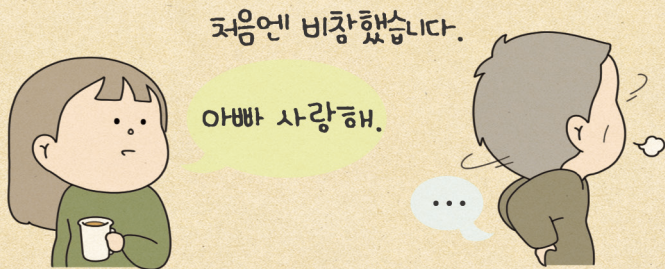
다짐을 했었지만, 19살이 되던 해
문득 이상한 고집이 들더군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아빠에게 희망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그마저 실패하면 집을 나가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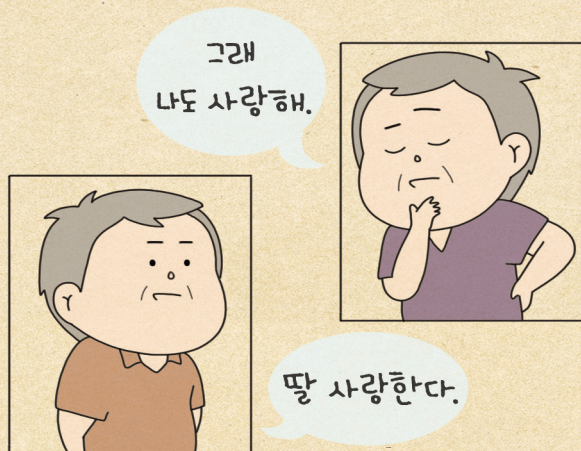
저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그리고 아빠에게 사랑한다는 대답을 받아내기.



아무리 다정하게 인사해도 아버지는 저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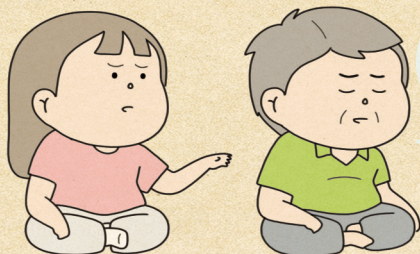


제가 감뻑 잊은 날엔
먼저 표현을 하시기도 했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색해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걸요.

며칠 전 아버지는 또
투박한 말로 언니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고
저는 아버지에게 슬며시 가 말했습니다.

아빠
언니한테
사과해~



아유 됐어 뭘
그런 걸 굳이.

아버지는 고집을 피우며 사과할 수 없다고 하셔놓고
언니에게 전화해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그날 밤 언니는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25년 살면서
아빠한테 사과받은 거 처음이야.
그 한 마디에 내 지난 시간의 상처가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더라.



제아무리 커다란 사랑도 마음속에 간직만 하고 있다면
상대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처럼 용기 내어
사랑을 꺼내시기를 바라는 밤입니다.



행복을 찾는 사람들

브랜드 성장 플랫폼의 글로벌 리더



IBK기업은행 남양주지점 거래고객

(주)아이베 강필구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주)아이베(EIBE)는 글로벌 브랜드의 한국 시장 진출과 성장을 지원하는 브랜드 성장 플랫폼(Brand Acceleration Platform) 기업이다. 30년에 가까운 역사 속에서 브랜드 전략 수립, 마케팅,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물류, 고객 서비스까지 브랜드 운영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이곳은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로부터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으며 기업 성장 플랫폼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고 있다.

1997년 식품 대리점으로 출발한 (주)아이베는 강필구 대표의 '선택의 방향' 속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다. 제한된 노동력으로는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그는 2000년, 막 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온라인 유통으로 빠르게 전환했고, 이후 사업은 순조롭게 규모를 키워갔다. 그러나 일정 규모

를 넘어서는 순간, 수익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고 강필구 대표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렸다. 국내 브랜드 중심의 단순 유통이 아닌, 해외 브랜드를 전 과정에서 설계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한 것이다.

현재 (주)아이베는 글로벌 뉴트



리션 기업 다논뉴트리시아(Danone Nutricia), 글로벌 ICT 및 스마트 디바이스 기업 화웨이(Huawei), 글로벌 프리미엄 로봇청소기 브랜드 드리미(DREAME) 등을 주요 파트너로 두고있다. 유통, 물류, 판매, 고객 대응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행용품 브랜드 브라이튼(Brighton)을 소유하고 있는 (주)비티물과의 합병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 플랫폼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사업이 결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강필구 대표는 “단순한 매출 확대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주)아이베는 빠른 확장보다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 왔다. 이들의 핵심 기준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다. 브랜드와의 제휴 과정에서는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시장 이해도, 유연성, 장기적 투자 의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강필구 대표의 운영 철학 중심에는 ‘신뢰’가 있다. 그는 “신뢰가 없으면



시작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사업 과정에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관리해 왔다. 이러한 태도는 조직 내부는 물론 외부 파트너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로 최근 대형 플랫폼 미정산 사태 당시, 자사의 손해를 감수하고 소비자들에게 약 5억 원 상당의 제품을 배송한 사례는 그가 말하는 신뢰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조직 구조 또한 이러한 철학을

반영한다. 관리자들은 전체 흐름을 이해하며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투명한 정보 공유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조직의 실행력을 뒷받침한다.

(주)아이베의 성장 과정에는 IBK 기업은행이 중요한 금융 파트너로 함께해 왔다. 강필구 대표는 “사업 초기 IBK기업은행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백승남 남양주지점장은 “물류센터 구축과 사업 확장 과정에



서도 동행은 계속됐다”며 “아이베와의 관계 핵심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리스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지 않고 사전에 협의하며 함께 방향을 모색했던 점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투명한 소통을 기반으로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장기적인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더 큰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공동목표다.



(주)아이베 강필구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남양주지점 백승남 지점장

❗ (주)아이베 강필구 대표 운영 노하우 3가지

1. 빠른 의사결정이 경쟁력이다.
2. 전체를 보는 인재가 조직을 움직인다.
3. 신뢰와 투명성이 조직의 기반이다.

(주)아이베

대표 강필구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2길 5 아이베빌딩 2층

전화 070-4349-4099

홈페이지 <https://www.eibe.co.kr>



여자는 모른다

77 쿵 하면 짹

83 끝까지 같이 걸어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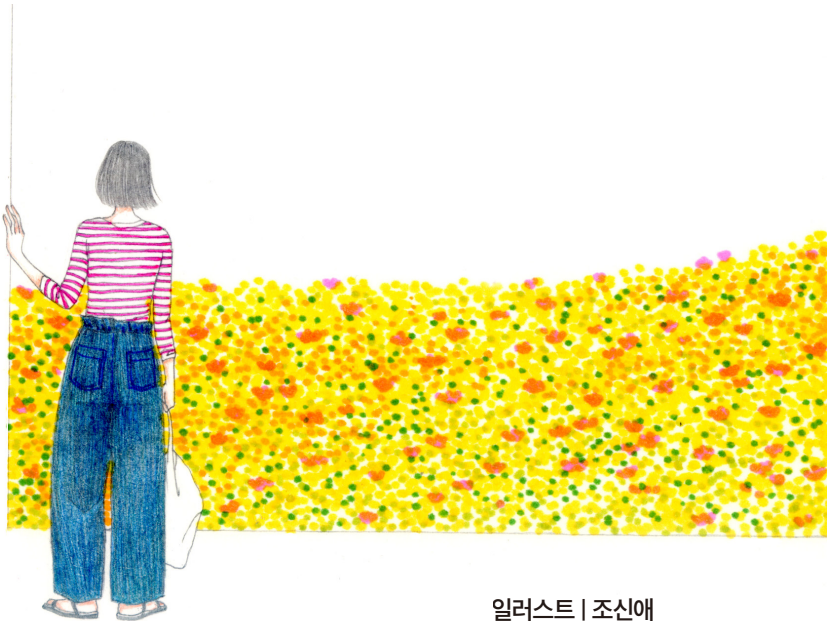
88 짹사랑

91 포기하지 않는 마음

95 김치 공장 에이스

100 언제나 청춘

104 좋은 생각 하나



일러스트 | 조신애

여자는 모른다

콩 하면 짝

애청자

시작은 닭살 돋게 달콤했습니다. 37년 전 데이트하던 날.

“희은 씨~ 이 집 맛집이래요. 어때요?”

“크~ 국물이 끝내줘요~”

“희은 씨가 김치찌개 좋아한대서 내가 밤새 찾은 거예요. 블로그에서 봤는데 이 집은 아주 잘 익은 묵은지로만 끓인 대요. 어떤 식당은 김치가 익기도 전에 익지로 막 삭히는데 이 집은 저온에서 최소 1년 이상 제대로 숙성시킨 묵은지만 쓴대요. 시간이 빚어낸 ‘자연의 맛’이랄까? 아니다. 오래된 맛 집만이 낼 수 있는 ‘장인의 맛!’”

“기성 씨는 어쩜 그렇게 아는 것도 많고 표현력도 섬세해요. 제가 살면서 먹은 김치찌개 중에 오늘 기성 씨랑 먹는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진짜요? 아~ 기분 좋다. 사람들이 저 보고 뇌섹남? ‘뇌가 섹시하다’ 그런 말 종종 하긴 하는데 저도 오늘 희은 씨한테 들은 칭찬이 제일 좋은데요. 그리고 여기 이 집은 고춧가루가 태양초랑 청양고추를 한 7 대 3 정도 비율로 섞여 있는 거 같네요. 입자가 아주 고운 게 딱 봐도 국산이네.”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총각, 입맛이 귀신이네. 맞아. 우리 집 다 국내산만 써. 반찬도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직접 다 만든다니까?”

“어쩐지. 나는 지금 여기가 우리 집인 줄 알았잖아. 처음 온 식당인데 우리 엄마 맛이 나요. 아주 집밥 같아.”

“그래, 자주 와요. 우리 집 제육볶음도 맛있어.”

“오! 제육볶음.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희은 씨, 우리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와야겠는데요?”

“좋아요. 사장님이랑도 금방 친해지고 기성 씨는 친화력도 정말 좋으시네요. 우리 아빠는 엄청 과묵하세요. 그래서 집이 너무 조용하고 답답해요. 저는 나중에 결혼하면 아빠 같은 남자 말고 상냥하고 자상한 남자랑 하고 싶어요.”

“음~ 방금 찾았네요. 희은 씨 이상형. 나랑 해요~ 그 결혼!”

그렇게 결혼해서 지금까지 37년. 그새 우리 희은 씨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다 된 걸까요? 언젠는 상냥하고 다정해서 좋다더니 이제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귀에서 피가 날 거 같답니다.

“사장님, 이 집 멸치볶음 비결이 뭐예요? 물엿인가? 조청인가? 기름에 먼저 볶으셨죠? 지난달보다 멸치 씨알도 좀 곱어

진 것 같은데?”

“남자분이 별걸 다 알아. 입맛도 예리하시고 혹시 요리사예요?”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를 해야 사랑받잖아요. 레시피 좀 알려줘 봐요. 나도 집에 가서 좀 해보게.”

“안돼. 그건 우리 집 영업비밀이야.”

“그러지 말고 좀 알려주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그쯤에서 아내가 한마디 하더군요.

“그만 좀 해. 수사반장이야? 왜 가는 식당마다 레시피를 캐고 다녀?”

“사장님들 기분 좋으시라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수다 떨다 보면 서비스도 하나씩 주고 그러잖아.”

“아휴~ 그놈의 수다! 수다 좀 줄여. 우리 그 단골 찌개 사장님한테도 내 생일에 미역국 끓여줬다고 그렇게 생색을 냈다며?”

“내가 소고기 양지머리 사다가 3시간 푹 끓여줬잖아. 나는 그냥 팩트를 말한 건데.”

“그래~ 37년 살면서 딱 한 번! 딱 한 번 끓여줬지. 그래도 고마워! 진짜 고마운데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말할 때까지 당신은 좀 참으면 안 될까? 제발 그 말 좀 줄여.”

다소 억울하긴 했지만 사실 제가 좀 특이하긴 합니다. 대한민국의 일반 남자들보다 말이 좀 많아요. 그리고 오디오가 비면 너무 불편합니다. 샤워할 때나 화장실에서 불일을 볼 때도 저는 라디오를 켜놓을 정도로 조용한 걸 못 견뎌요.

그러니 하루의 3분의 1을 보내는 직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그때그때 맘 놓고 못 하는 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고 재미가 없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회사가 일을 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라지만 날씨 얘기, 맛집 얘기, 여행 얘기, 고향 얘기, 요즘은 주식에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까지 할 얘기가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언제나 절간같이 고요합니다. 입이 무거운지 할 말이 없는 건지 말주변이 없는 건지. 암튼 이유는 제가 다 모르지만 사람이 대화하고 표현을 해야 상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가까워지고 일도 더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남자들은 그나마 술이 들어가야 입을 여는지. 가끔 있는 회식 자리에서 술이 좀 들어가면 속에 담아뒀던 얘기들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확실히 다들 저보다 말재주가 없는 거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라도 술기운에 마음을 털어놓는 남자들이 저는 또 왜 그렇게 짝한지.

그래서 성향이 좀 안 맞는 직장이어도 ‘일만 하자. 일만~’ 이러면서 겨우겨우 근근이 어떻게든 참고 지내던 중이었는데 최근에 비로소 만났어요. 사람 좋아하고 여기저기 호기심 많고 친화력 ‘갹’인 저와 아주 비슷한 성향의 동료예요. 아니, 그는 오히려 저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형님, 어제 그 일등만 나오는 오디션 보셨어요?”

“봤지. 그럼~”

“그 3라운드 우승한 출연자 말이죠. 고음 올라갈 때 비브라토가 한 0.5초 정도 늦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K-감성’을 자극했다고 봐요. 아시죠. 밀! 땅! 밀면 땅기고 땅기면 밀고. 아,

갑자기 밀면 당기네.”

“이따 가자. 밀면, 점심으로 콜?”

“콜! 역시 우리 형님, 내가 이래서 형님 좋아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주식 사셨어요?”

“아니, 요즘 장이 좀 요동을 쳐야지. 추매는 신중하게 하려고. 돈도 얼마 없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주식 리포트를 하나 분석해 봤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랑 제가 엑셀로 분석해 놓은 그래프를 비교해 보니까 딱 지금, 지금이에요. 그 종목 추매 타이밍입니다.”

“오~ 고마워! 내가 이번에 또 수익 나면 제대로 한턱 쏜다.”

“그럼 저 휴가 다녀와서 한잔 콜?”

“아, 맞다. 다음 달에 자네 휴가지?”

“네~ 제가 독일 여행 동선 짠 거 보여드렸나요? 프랑크푸르트공항 2터미널 내리자마자 오른쪽으로 150미터 가면 7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소시지 맛집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메뉴판부터 주방장 얼굴까지 싹 찍어올게요. 거기 소시지는 껍질 두께가 0.1밀리라서 입에 넣자마자 육즙이 팡팡 터진대요. 제가 그 소리까지 싹 녹음해 옵니다. 기대하세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그나저나 나는 우리 김 과장 없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랑 노냐? 내가 우리 김 과장 만나고 월요일이 없어졌잖아. 주말에도 회사에 막 오고 싶어. 수다 떨라고. 근데 어떡하지? 김 과장 휴가 가면...”

“심심해도 조금만 참으세요. 일주일 그거 금방 갑니다.”

오지랖 넓고 잡학 다식에 한 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뭐든 화수분처럼 쏟아내던 엄청난 에너지의 소유자. 그가 유럽으로 떠난 후로 사무실은 다시 절간처럼 조용해질 줄 알았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우리 사이엔 ‘톡’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든 24시간 소통 가능한 우리의 연결고리.

“여보, 휴대폰 불나겠다. 또 그 김 과장이야?”

“응~ 여기 소시지 육즙 터지는 소리를 보냈네. 뽕뽕! 이야~ 역시 다르네. 여보도 좀 들어봐.”

“아이고 됐어. 남이 먹는 소시지 뭐 좋다고 들여다봐? 그리고 그 사람은 뭐 친구도 없대? 왜 그 멀리까지 가서 당신한테 1분 1초 다 보고를 한대?”

“혼자 갔거든. 대화할 사람이 없나 봐. 그리고 보니 우리 김 과장 지금 얼마나 외로울까? 내가 리액션을 더 잘해줘야겠어.”

“아이고, 정말 대단한 우정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참으로 귀하고 대단합니다. 제가 쿵 하면 저쪽에서 짹! 오디오가 빌 틈 없는 우정! 타인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저는 모든 사람이 생긴 대로 태어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대로 몸도 가볍게 입도 가볍게 티키타카 잘 맞는 김 과장이랑 계속 이렇게 지낼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그가 긴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네요. 이 친구,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다를 떨까요? 저는 또 얼마나 맛있게 리액션을 칠까요? 우리의 우정이 오랫동안 이어지길!

“김 과장, 우리 또 신나게 털어보자고!”

여자는 모른다

끝까지 같이 걸어가자

이중환

제 아내는 참 예쁩니다. 마음도 예쁜데 특히나 눈 코 입, 그 중에서도 웃을 때 반달이 되는 눈매가 정말 치명적으로 사랑스러워요.

“당신, 인기 진짜 많았잖아. 나 말고도 따라다니는 놈, 많았지?”

“뭘 그런 걸 물어. 당연하게. 동네를 잘 못 다녔지. 내가 열 발짝 걸을 때마다 고백이 들어와서~”

그런 아내가 제 마음을 받아줬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납니다.

“근데 진짜 왜 당신 같이 예쁘고 똑똑한 여자가 나 같은 놈하고 결혼했어?”

“콩깍지라니까! 내가 그놈의 콩깍지만 아니어도! 으휴~ 누굴 탓해. 내 눈을 탓해야지.”

아내의 이런 귀여운 양탈에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지키지도 못할 달콤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나랑 결혼하자! 결혼하면 내가 네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줄게.”

“그 말을 내가 믿었다. 순진했어. 순진해도 너무 순진했어. 바보같이.”

맞습니다. 아내는 바보입니다. 달콤한 나의 말에 속아 전공을 살려 취업한 회사도 퇴사하고 결혼과 동시에 내가 있는 낯선 곳으로 와서 터를 잡았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밀려드는 집안일. 결혼하고 아내는 손에 물 마를 날이 단 하루도 없었지요. 회사에 다닌다는 핑계로 저는 집안 대소사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밤낮없이 일만 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갓난쟁이 아이를 키우는 건 온전히 아내의 몫이 되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달려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자기야 왔어? 있잖아. 오늘 우리 아기가 처음으로 웅알이 했다. ‘엄~ 마~’ 비슷한 소리를 냈다니까.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현정아, 나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바빴어. 회의만 다섯 번에 외근까지. 그 애긴 나중에 듣자. 응? 나 일단 좀 씻을게.”

“그래 고생했어. 씻어.”

달라진 우리의 일상에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도 먹는 등 마는 등 허공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기가 울어도 듣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인기 많고 당당했던 현정이는 온데간데없고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아지던 아내. 그렇습니다. 아내는 산후우울증으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함보다 당황스러움이 앞섰습니다.

연애 때는 척척 알던 아내의 마음인데 왜 결혼하고 나서는 이토록 무지한 남편이 되었을까요? 무얼 먹여야 할지, 어딜 데려가야 할지 온통 물음표뿐이었습니다. 저에게 시집은 아내가 안쓰러웠습니다. 연애 때는 아내의 24시간이 그렇게 궁금했는데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부담감에 앞만 보고 달렸다면 너무 비겁한 변명일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산 입에 거미줄 치랴. 아껴 쓰자!’ 하는 마음으로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지금은 오직 아내의 건강만 생각하자!”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휴직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서툴지만 기저귀도 갈아보고, 젖병도 삶아보고, 우는 아이를 달래며 밤을 지새워도 봤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겠더군요. 그동안 아내가 혼자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왔을지. 아내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습니다. 어느 새벽, 아이가 밤새 열 경기를 했을 때도 아내는 출근하는 저의 잠을 깨울까봐 자그마한 몸으로 혼자 아이를 안고 엮고 발을 동동 굴렀을 겁니다.

“여보, 기저귀 가방 여기 챙겨놔어. 손수건이랑 젖병도 넣

있고. 자, 이제 가자. 우리 아들 예방접종 늦겠다.”

“진짜 같이 가? 나 혼자 가도 되는데.”

“우리 이렇게 같이 병원 가는 거 처음이다. 그치? 이제부터 계속 이럴 거야. 가방 이리 줘. 내가 멜게.”

예전 같으면 아내 혼자 아이를 안고 외롭게 걸었을 길을 처음으로 셋이서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주사 꿈 맞아도 울지 말고 잘하자.”

“아가 엄마 아빠를 고루 닮아서 인물이 흰하네. 아기 엄마 좋겠소. 신랑이 이런데도 같이 와주고.”

“감사해요. 저희 남편이 좀 자상하죠?”

“그러게. 나 때는 남자들이 안 저랬어. 우리 집 남자는 애 기저귀라도 한 번 갈아주면 어디 손가락 부러지는 줄 알았다니까. 아무튼 보기 좋소. 색시, 시집 잘 갔네.”

속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아내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채는 아이를 안고 달래며 말없이 그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에 느꼈던 아내의 온기가 느껴지더군요. 너무 늦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자기야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우리 세 식구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이거면 충분한 것 같아.”

아! 안도의 숨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예전처럼 웃음이 많아졌고 다시 밝아졌습니다.

“됐다! 우리 현정이 드디어 돌아왔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아내와 아이를 동시에 품에 꼭 안았습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싹 내려가더군요. 이제 휴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복직하면 다시 일상에 쫓기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짐합니다. 내가 일하는 건 아내와 아이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인만큼 다시는 일 때문에 두 사람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매일의 행복에 감사하며 열심히 사랑을 주는 남편이자 아빠로 우리 집의 믿음직한 가장이 되겠다고!

“현정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나 혼자 짊어지는 것도 당신 혼자 견디는 것도 아닐 거야. 이번만큼은 달콤한 거짓말이 아니야. 나를 믿어. 그리고 나랑 같이 천천히 끝까지 걸어가자. 사랑한다!”

여자는 모른다

짝사랑

애청자

저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저에게는 무려 7년 동안 짝사랑해 온 남자아이가 있어요. 그 애를 선우라고 할게요.

저는 선우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알았어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동그란 눈, 바가지 머리. 그때는 정말 잘생겨 보였죠. 선우는 못 하는 게 없었어요. 시험만 보면 100점은 기본에 운동도 잘해서 그야말로 ‘엄친아’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어느 날, 제가 교내 수학 경시대회에서 30점을 맞았어요.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으니깐 친구들이 달려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 짝꿍이었던 선우가 제 친구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달려주지 마. 달려주면 애 더 울어.”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그렇게 설레더라고요. 짜증이 나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4학년 때는 반이 떨어지고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선우가 상상 속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5학년 때 다시 같은 반이 된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때는 정말 잘 놀았어요. 장난도 많이 치고 우연히 선우 형과 제 오빠가 친구였다는 사실도 알게 돼서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그랬어요. 그때 제 마음이 더 커진 거 같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6학년 때 같은 반 되면 고백해야지.’

근데 아쉽게도 6학년 때 같은 반이 되지 못했어요.

대신 우연히 같은 학원에 다니게 됐죠. 학원이 끝나면 항상 집에 같이 가는 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언니가 아파서 못 나왔어요. 그래서 혼자 집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소리쳤어요.

“워!”

“악! 깜짝이야!”

“놀랬냐?”

“뭘야~ 너였어?”

“응. 히히. 오늘은 혼자네?”

바보같이 웃는 선우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알기론 우리 집은 선우 집과 방향이 완전 반대거든요. 근데 애가 왜 여기? 그날만 내가 혼자인 건 또 어떻게 알까요? 그럼 이거 혹시 가능성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얼마 후 저는 학원을 그만둬야만 했어요. 중학교 1

학년이었던 10월의 어느 날 밤에 숙제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결심했어요. 선우에게 고백을 하기로요. 용기 내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

4시간 정도 지나고 드디어 답장이 왔어요.

<뭔데?>

<저기 있잖아. 그게. 놀라지 마. 그게 있잖아. 나 너 좋아해.>

정말 그날따라 심장이 너무너무 두근거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용기 내어 고백한 저에게 선우가 내놓은 답장.

<갑자기?>

<너한테 갑자기지만 나한테 3년이야.>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정적. 1분 1초가 저에겐 엄청 긴 시간 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답장은 <미안...>.

그땐 너무 어렸고 제가 모태 솔로다 보니까 고백하는 방법도 잘 몰랐어요. 아마 제가 선우였어도 그런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렇게 차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될 때까지도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새 학기가 된 지금까지도 선우를 좋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무서울 지경입니다. 제 최종 목표는 스무 살이 되는 해, 딱 한 번만 더 고백해 보고 그때도 안 되면 정말로 포기하려고요. 저, 혹시 너무 오래 좋아하는 걸까요?

여자는 모른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애청자

제 하루는 병원 투석실에서 시작됩니다. 늘 같은 풍경이죠. 여러 개의 침대, 조용한 공간 그리고 이 기계 소리. 이 모든 게 이젠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환자분,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투석받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죠?”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기계 소리가 자장가 같아요.”

겉으론 늘 이렇게 씩씩한 척하지만 사실 병실에서 몇 시간을 누워 있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조금 지쳐 있던 날. 그런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또 하나의 문제가 덮쳤습니다.

“000 고객님의 맞으시죠? 이번에 신청하신 수술비 말입니다.

저희 답변은 ‘지금 불가’입니다. 고객님의 지금 받으시는 치료는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보험비 지급이 안 된다고요? 갑자기 이게 다 무슨 말이죠? 제가 약관에 적혀 있는 내용을 다 본 거 같은데.”

“고객님이 뭘 잘못 하셨나 보네요. 암튼 내부 방침이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 억울하시면 소송이라도 하시든가요.”

너무 분하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상대는 대기업,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보험사였고 제 주변에서도 다들 저를 말리더군요.

“야, 포기해. 개인이 대기업 보험사를 무슨 수로 이기냐? 계란으로 바위 치기야.”

“너 지금 몸도 성치 않은데 그쪽은 변호사만 일곱 명이라며? 네가 혼자서 무슨 수로 이기니? 몸만 더 상해. 그만둬.”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 역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대로 포기하면 억울함은 평생 남는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약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의료 자료도 찾아봤죠. 제가 받은 치료가 어떤 시술인지,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판례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요?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무리해.”

모두가 잠든 새벽, 시계를 보니 3시더군요. 몸은 피곤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가 제출한 판례와 제가

찾은 판례를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며 정리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다른지, 어떤 논리가 맞지 않는지. 그리고 마침내 재판의 날이 왔습니다.

“사건 번호 0000 원고 000, 피고 대기업 보험사.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변호사 없이 직접 출석하셨습니까?”

“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쪽엔 변호사가 무려 일곱 명, 저는 혼자였습니다. 잠시 위축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밤을 지새우며 정리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떨지 마! 나는 할 수 있다! 아자아자! 포기하지 마! 포기하는 거 아니야!”

“판사님, 원고가 받은 시술은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 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판사님, 아닙니다. 보험사가 제출한 판례가 왜 이 사건과 다른지, 제가 받은 치료가 왜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에 해당 하는지 제가 정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모한 싸움의 한복판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를 믿고 싸웠습니다.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했고 시간이 흘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참, 쉽지 않은 소송인데 변호사 없이 대단하시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원고 승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켜 보



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싸움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크고 강한 것들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도 절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도 저는 투석실에서 기계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치지 않습니다. 힘든 시간을 버티는 사람은 생각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혹시라도 무엇이든 ‘포기할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조금만 더 버티보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 길 끝에는 저처럼 생각하지 못한 순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자는 모른다

김치 공장 에이스

애청자

“신입, 거기 배추 박스 이쪽으로 좀 옮겨봐. 아이고, 남자가 그거 하나 못 드냐? 이리 나와 봐. 이렇게 번쩍번쩍 들어야지.”

“알바할 때 완전 에이스였다던데? 이거 오늘 안에 다 끝내겠냐? 힘내! 파이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김치 공장에서 알바를 하다가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원재료 검사부터 폐기, 반품, 양념 버무리. 포장과 출하까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죠.

“오늘도 정신없었지?”

“아닙니다. 다들 잘 챙겨주셔서.”

“오늘 고생했다고 과장님이 삼겹살 쏘신대. 가자~”

회사 특성상 부장님만 빼고 과장님, 주임님이 모두 여자분이라 저는 다들 술을 잘 못 드실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우리 신입, 정식 직원 된 거 축하한다. 자~ 내 술 한 잔 받고 멋지게 건배사 한마디해 봐.”

“신입~ 우리 과장님 소문난 말술이다. 대작할 때 조심해라.”

“아~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아예 못 마셔요. 마시면 두드러기도 심하고 잘못하면 호흡곤란까지 와서 병원에 실려 가거든요.”

“호흡곤란? 그 정도면 마시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리고 실은 제가 어릴 적에 술을 너무 즐겨 드시던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안 마셔야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려면 조금은 마셔야 할 것 같아 노력도 해봤는데 그때마다 병원 행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럼 음료수 마셔. 아휴, 우리 아빠가 술 못 마시는 남자랑은 일하는 거 아니겠는데 할 수 없지. 자자, 우리끼리라도 마시자.”

화기에애하던 회식 분위기는 제 그 한마디에 확 죽어버렸습니다. 다들 제 눈치를 보며 자기들끼리만 건배하는데 그 소외감이 가시방석이 따로 없더라고요. 2차, 3차는 자연스레 빠지게 됐고 이리다간 회사에서 저만 곁돌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비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식 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술자리 계산을 도맡았고 노래방에 가서는 누구보다 신나게 놀았습니다. 취한 직원들을 위해 택시도 잡아드리며

안전 귀가도 책임졌습니다. 저는 회식 자리에서 맑은 정신의 신입, 모두의 귀가를 책임지는 ‘보호자’가 되기로 한 겁니다.

“와! 신입은 술도 안 마시는 애가 회식 때마다 어쩔 저렇게 잘 놀아? 대박이다.”

“선배님들! 제가 술은 못 마시지만 이 사이다로 분위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건배사 ‘사이다’로 운 한번 띄워주세요 오.”

“오 좋아 좋아~”

“사!”

“사랑합니다!”

“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배님!”

“다!”

“다 취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맨! 제가 있으니깐요. 건배~”

“키야~ 멋있다! 우리 신입, 건배~”

“그래 잘 마시네. 근데 신입, 너 아까부터 사이다만 벌써 세 병째 아니니? 배 안 불러?”

“과장님, 저는 아까 신입이 가방에서 ‘회식 때 분위기 살리는 법’ 책 꺼내는 것도 봤어요. 술도 못 마시는 애가 어떻게든 끼어보려고 이렇게나 애를 쓰는데 어우~ 나 미안해서 고기가 목에 안 넘어가요.”

“그래, 너는 좀 그만 먹어도 될 거 같아. 그리고 신입, 너는 너무 애쓰지 마. 안스럽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우리끼리만 마



시니까 꼭 죄짓는 기분이야!”

“과장님, 그럼 우리 매번 이럴 게 아니라 다음 회식부터는 다른데 갈까요? 술 못 마시는 사람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데 노래방 어때요? 노래방~”

“야! 노래방은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주임아, 너 말이 맞다. 우리 다음부터는 고기 굽고 술 마시는 거 말고 카페로 가자. 볼링도 치고 영화도 보고.”

“오, 좋아요~ 우리 ‘에이스’도 함께 즐거울 수 있는 회식으로 갑시다! 고~고~”

그날 이후 정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를 배려해서 회식 장소를 카페, 볼링장, 영화관으로 짝 바꿔주셨어요. 한다면 하는 누님들, 그 따뜻한 배려에 저도 가만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 내 책상에 숙취 해소 음료랑 포스트잇!”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

“어머나, 신입 씨~ 자기 진짜 센스쟁이당!”

“나도 고마워. 요즘 이 친구, 우리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도 꼭 챙겨보더라고.”

저의 승부수는 술보다 마음! 술잔을 채우는 것보다 제 마음을 드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맞아, 우리 신입 아님, 우리 막내. 매일 아침 밝게 인사해 주고 우리 이름 하나하나 다정하게 불러줄 때부터 알아봤어.”

“일손 필요할 때도 얼마나 정중하게 부탁하는지 그 마음이 예뻐서 내가 배추 한 포기라도 더 옮겨주고 싶다니까.”

사실 윗사람들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저 술 못 마십니다’ 이 한마디 꺼내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요. 그래서 저는 더 고맙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단번에 알아주시고 술집 대신 맛집 탐방으로 판을 갈아주신 우리 동료 선배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술 대신 열정으로! 건배 대신 함성으로! 김치 공장의 ‘에이스’ 비지땀 흘리며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여자는 모른다

언제나 청춘

애청자

저는 공무원으로 36년 6개월을 일하다 정년퇴직하고 딱 5일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10년째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일흔 살 남편입니다.

저와 제 옆지기 박 여사는 소문난 잉꼬부부죠. 남들 눈에는 너무 닭살이어서 좀 ‘밋상’일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 버스 자리가 이렇게 널널한데 왜 굳이 저렇게 꼭 붙어있대. 땀나게.”

“그러니까 말이야. 저 나이에 손까지 꼭 잡고. 어머 어머! 불륜 아니야? 그래, 불륜인가 봐.”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갔을 때도 다른 부부들은 죄다 멀찍이 떨어져 앉거나 따로 다니는데 우린 남들이 뒤에서 뭐라 하든 말든 꼭 붙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난도 치

며 키득거리며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뇌종양이요? 제, 제가요?”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뇌막에 혹 같은 게 생긴 건데 치료만 잘 받으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2019년 7월, 의사는 차분하게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날벼락이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청천벽력. 맑았던 우리 집 하늘에 느닷없이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망연자실해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다행히 천운으로 최고의 교수님을 만나 네 차례의 대수술을 받았고 아내는 중환자실에서의 사투를 벌이며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45일간의 입원 끝에 기적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왔어. 웬 노래를 이렇게 크게 틀어놨어? 당신, 왜 울어? 왜 그래? 어디 아파? 또 아픈 거야?”

“여보 그게 아니라 노래가 너무 내 인생 같아서. 나 너무 슬퍼서 그래.”

“아이고 놀래라. 신나는 노래를 듣지. 왜 방정맞게 이런 슬픈 노래를 들어.”

아내가 또 아플까 봐 또 수술실 앞에서 나 혼자 무섭게 떨어야 할까 봐 순간 걱정했던 마음이 풀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울컥 통명스러운 짜증이 나왔지만 그동안 울음을 참고 산 듯한 아내의 말에 사실 제 코끝도 찡해졌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보다 딱 하루만! 딱 하루만 더 살다 가요. 알았죠?”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이는 아내 앞에서 저는 공수표가 될 수도 있는 약속을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에이, 걱정하지 마. 까짓것 내가 100살까지 살면 되지. 아무 걱정하지 마!”

수술 5년 차였던 2024년 9월 드디어 아내는 MRI 결과 ‘이상 없음’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말했던가요. ‘인생은 가까워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다 지나고 나니까 저도 그제야 좀 웃음이 나더군요.

그래서 저의 인생 여정을 담아 수필집도 한 권 냈습니다. 제목은 《나는 죽을 때까지 현역이고 싶다》.

근데 거기서 또 생각하지도 못한 복병을 만났네요.

“당신 이거 뭐야? 왜 내가 뇌수술 받은 얘기를 여기서 썼어?”

“그게 내 인생을 기록하는데 당신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 힘든 고비를 어떻게 넘겼는데!”

“그래도 나는 싫어. 사람들이 암 수술은 대수롭지 않게 봐도 뇌수술 받았다고 하면 ‘정신적으로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하게 본단 말이야. 그래서 난 지인들이 알까 봐 불안해 죽겠는데 당신은 이걸 왜 자랑처럼 써놓은 거야?”

아내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오른쪽 관자놀이에 움푹 들어간 수술 자국과 봉숭아씨처럼 툭 터져버리는 어린 감정을 훈장처럼 안고 삽니다.

남편이 책을 낸 건 자랑스럽지만 아픔이 알려지는 건 싫은

그 ‘양가감정’.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책이 완성된 순간 아내의 뜻밖의 반응을 보니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큰 병을 이겨낸 아내의 서사가 정말 감춰야 할 부끄러운 일일까요? 나쁜 종양을 뿌리째 뽑아내고 건강하게 복귀한 아내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일인데 말입니다.

수술받은 지 어언 6년 6개월째. 수술받았다는 사실조차 잊고 이제는 건강한 몸 만들기에 전력투구해야 하는데 아내는 아직도 아픔에 젖어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고려해서 출판사랑 협의해 책을 절판이라도 시켜야 할까요?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박 여사. 당신은 병마를 이겨낸 당당한 승리자야. 당신 관자놀이에 남은 그 흉터는 생의 의지로 빚어낸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이야. 그러니 이제 남들 의식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이겨낸 그 시간을 당당하게 여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알지? 난 영원한 당신 편이야!”

여자는 모른다

좋은 생각 하나

애청자

연봉 협상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나는 속으로 몇 번이나 말을 고쳐 보았습니다.

“후~ 연습한 대로만 하자. 사장님, 제가 지난 3년 동안 지각 한번 없이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실하게 일한 만큼 이번엔 꼭 연봉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건 너무 구걸 같나? 아냐, 정당한 요구야. 열심히 했잖아. 그래 쫓지 말자!”

그날 내가 바란 건 단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과 성실함이 인정받았다는 작은 증표 ‘당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는 회사의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고 단단했습니다.

“연봉 인상이요? 안 됩니다. 지금 회사 사정 안 좋은 거 아

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고 계신 일은 다른 사람이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 같네요.”

연봉 협상이 퇴사 통보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텅 빈 자리로 돌아와 환하게 빛나는 모니터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하게 돌아가는데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독립해 마련해 둔 작은 집 그리고 달력 위에서 성실하게 나를 기다리는 대출 상황일.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창에 비친 내 얼굴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은 사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백지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 수십 통의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낯선 번호가 뜨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지만 돌아오는 건 늘 차가운 거절뿐이었죠.

“죄송합니다. 이번 채용에서는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일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자정이 넘은 시간, 사람들이 잠든 골목을 트럭과 함께 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트럭에 쏟아붓는 일은 생각보다 무겁고 생각보다 냄새가 짙었습니다. 허리는 금방 비명을 질렀고 코끝을 찌르는 냄새는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날카로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새벽 출근길에 마주치는 사람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투명한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직업엔 귀천이 없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여전히 높고 낮은 일이 존재한다는 것어요. 두 지역을 한꺼번에 맡

게 되면서 일은 배가 되었고 결국 몸이 먼저 한계를 선언했습니다. 이대로는 버틸 수 없겠다 싶어 그만두겠다는 말을 어렵게 꺼냈을 때 회사는 또 한 번 냉정하게 저를 쳐냈습니다.

“네? 그만둔다고요? 나 참 그럼 우리도 이번 달 월급 못 줍니다. 그렇게 아세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그러나 이내 곧 다시 생각을 고쳤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래도 살아야 한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비계 동바리’라는 낯선 일을 하기 위해 새벽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 일은 건물이 올라가기 전 사람들이 다닐 길을 먼저 만드는 일. 나는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나에게 그 일은 매 순간이 공포였습니다. 다리가 떨려 발판을 제대로 딛지 못 했고 손에 땀이 차 공구를 놓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루이틀 견뎌내니까 두려움 위에 ‘익숙함’이라는 얇은 막이 덧입혀지더군요. 집에 돌아오면 온몸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몸에서는 늘 먼지 냄새와 땀내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섯 달쯤 됐던 어느 날 사고가 터졌습니다. 상부에서 떨어진 장비가 내 손을 덮친 겁니다. 순간 귀 안에서는 날 벌레 수십 마리가 맴도는 듯 이명이 울렸습니다. 손가락 두 개가 부러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 나는 아픈 것보다 ‘이러면 일을 못 하는데’라는 계산이 먼저 서더군요. 사고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현장의 무사고 기록을 깨고 싶지 않

있고 무엇보다 다시 무직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돌아보면 몸보다 체면과 기록을 먼저 챙겼던 참 어리석은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수술대에 누워 하얀 불빛을 보며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너무 지쳤고 잘못된 방향으로 애쓰고 있었다는 것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걸음에 달려오셨고 어머니는 밥 위에 고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얼른 먹어. 식기 전에. 많이 먹어야 기운 차리지.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천만 원을 입금했다는 알림.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는 허락이자 “우리는 네 편이다”라는 조용한 응원이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당장 급하다고 나와 맞지 않는 일을 붙잡지 말자, 두렵다고 아무 길이나 선택하지 말자! 나는 처음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설계하는 삶’을 떠올렸습니다.

직업훈련학교에 등록하고 국비 지원 학원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이 현장의 육체 노동보다 낫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지만 그 느낌 속에서 나는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2차 전지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괜찮아요. 서두르지 말고 같이 방법을 잘 찾아봅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길을 물어올 때마다 나는 예전의 나를 떠올립니다. 새벽 골목에서, 높은 비계 위에서, 수술대 위에서 불안해하던 내 모습을요. 그때 나는 배웠습니다.

‘살아야 한다. 버텨야 한다. 이 길이 아니라면 다른 길을 찾으려면 된다.’

이런 작은 생각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실수한 사람에게 화내기보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마음을 먼저 묻습니다. 좋은 생각은 절망을 단번에 없애주진 않지만 어둠 속에서 한 발을 내딛게 하는 힘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조급해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면 된다.’

가끔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아픈 내가 서 있고 그 뒤에는 묵묵히 나를 지켜보시던 부모님의 그림자가 겹쳐 있습니다.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 흔들리고 있다면 나의 부모님이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아파도 그 시간이 너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그 시간이 다시 너를 세우는 중이야.”

그렇게 좋은 생각 하나로 찬찬히 단단하게 오늘도 하루를 지탱해 갑시다.

봄은 짧더라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주말마다 부여 오가기가 부담스럽지만 한편 즐겁기도 한 것은 당당이분들을 만나서 직접 눈 맞추며 이야기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멀리 순천, 여수에서 또는 저 동북쪽 강원도 고성, 서북쪽 인천에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 지 몇 마디 말로는 부족하다.

지난 주말 늦은 오후, 어머니 모시고 온 젊은이가 계셨다. 양희은, 양희경 그리고 희경이네 둘째 아들(배우) 한승현의 완전 '찐팬'이라고 소개하셨다.

결혼 전 데이트 할 때, 아이 아버지가 그렇게 내가 일하던 오비스 캐빈에 자주 데려갔었다며 그 시절로 추억 여행하듯 눈가에 이슬이 맺히셨다. 내 나이 물으시더니 당신이 다섯 살 위라고 하시는데 피부가 너무 고와서 놀랐다.

그날 엄마의 컬렉션에 더하기 내가 사서 모은 액세서리 등을 더해서 번개 벼룩시장 하려고 챙겼는데, 아들은 어머니가 고른 안전한 목걸이를 사드렸다.

8년 전부터 아프셨다는데 흐트러짐이 없이 말과 행동에 품위가 있으셨다. 운전 조심하라 인사하는데 아들이 노총각에다 목사라고 하셨다. 그렇지! 그럼! 장가 안 가면 아직도 엄마의 슬하를 못 벗어난 순전한 내 아들이지. 저렇게 서울에서 부터 모시고 와서 다정한 데이트를 하며 맛난 차 한 잔 나누는 사이가 결혼 후에는 쉬운 일이 아닐게다.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장가 안 간 둘째 아주버님과 함께 사셨다. 어느 자식보다도 솔직하게 당신이 원하는 바를 주문하셨다. 그런 표현을 둘째 아들에게만 하셨으니 어머니 속을 아는 분은 그 아드님뿐이셨다. 파킨슨병이 위중해진 후, 곁에서 곱은 수발들며 ‘엄마 가시면 뒤따라갈 거예요. 하지만 나도

일단 칠십은 넘기고 싶으니 우리 좀 더 오래 버티자' 하셨다.

어머니가 이상하시다는 급한 전화 끝에, 아직 쌀랑한 기운 남아 있는 3월 말경 어머니는 떠나시고 아주버님이 뒤따르듯 편찮으시더니 사드렸던 환자용 침대를 당신이 쓰시다가 취장암으로 가셨다. 결혼한 아들은 남의 남편이라는 농담도 있지만 시대 쪽 모자지간은 각별하셨다.

봄비 따라 꽃이 지면 따뜻한 초록들이 밀고 자라나겠지. 왔다 가는 봄은 짧고, 초여름이 성큼 다가오겠지.

한 2년 사이 김민기를 비롯해 전유성 선배, 그리고 올레길을 만든 서명숙까지 가까웠던 이들이 가고 나는 유방암 수술에다 20회의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있다.

사는 한 늙음은 피할 수 없고 노화는 겪을 수밖에 없겠다. <여기저기 안 아픈 데 없지만 죽는 건 아냐> 31년 생 작가 소노 아야코의 책을 다시 집어들었다.



봄날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이번 주말 아내와 우리 집 강아지 흥시 셋이서 공원 산책을 나갔다. 인천공항 근처에 있는 세계 평화의 숲이란 곳이다. 이미 우리 집 근처의 벚꽃들은 만개를 지나 꽃잎들을 마치 카펫처럼 바닥에 흩뿌리기 시작했는데 공원의 벚나무들은 아직 꽃이 다 피지 않았다. 거리상으로 크게 멀지 않은 곳인데 이렇게 개화 시기가 다르다니 놀랍다. 서울의 벚꽃들은 엔딩을 시작했는데 이곳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꽃 피는 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듯하여 아쉬웠는데 조금 더 길어진 기분을 산책하는 내내 느꼈다. 그야말로 벚꽃 연장.

이처럼 나는 사계절 중 봄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다. 남자는 가을을 탄다지만 이어질 겨울을 예고하는 가을이 별로다 난.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라일락인지 아

카시아인지 모를 향긋함을 품고 날아드는 봄바람은 아무 일 없어도 괜스레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들었다. 마흔 중반이 넘어가니 싱숭생숭의 정도는 약해졌지만 그래도 설레는 기분이 묘하게 드는 건 봄날이 가진 힘이자 매력이다.

돌이켜 보건대 기억력이 나빠서인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봄이라고 특별히 떠오르는 추억이 없다. 딱 지금이 중고등학생인 우리 두 아들을 봐도 봄을 즐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저 중간고사를 준비하며 주말에도 학원과 스터디 카페를 오갈 뿐이다.

하지만 스무 살 대학생 때는 봄날의 추억들이 한가득이다. 학기 초가 되면 각종 오티에 연합 엠티에 학년 엠티로 꽃피는 산과 들을 찾았다. 물론 어느 장소건 저녁이면 큰 방에 모여 술과 함께 단합을 즐겼지만, 엠티를 가지 않더라도 캠퍼스의 낭만을 즐겼다. 강의실 창밖으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보며 오늘은 어떻게 놀지를 궁리했다. 당시 용돈을 받는 입장에 매일 놀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다. 그럴 때면 맘이 맞는 친구 녀석과 모든 강의가 끝날 무렵 교문 앞을 서성였다. 아니 지켰다. 같은 과 선배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이

후 귀여움과 거리가 멀었지만 그때만큼은 한껏 애교 섞인 목소리가 필요하다. “선배니임~ 밥 사주세요!” 수업이 일찍 끝나는 오후에는 아예 캠퍼스 잔디밭에 자리를 잡고 우리의 술을 즐겼다. 안주로 새우 과자 하나면 어떡하리.

그렇게 두 번의 봄을 신나게 즐기고 그다음 해 1월에 군 입대를 했다. 논산에서의 봄은 늘 딸기 향으로 기억된다. 훈련 교장으로 향하는 길에 딸기의 달콤한 향을 맡으며 봄이 온 것을 실감했다. 역시나 두 번의 봄을 지내고 이듬해 3월에 제대했다. 복학생의 봄날은 전처럼 신나진 않았다. 특히나 학점 관리가 전혀 돼 있지 않았기에 봄은 물론 방학 기간에도 학점의 구멍을 메워야 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하고 아빠가 되고 여러 해의 봄을 지냈다. 전 여친과 데이트할 때의 봄이 좋았고 전 여친이 아내가 되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과 함께 다니는 봄 산책이 행복했다. 뭐든 신기해하던 아이들이 어느덧 자라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며 봄의 설렘을 잠시 미워들 때도 아내와 난 봄 산책을 다녀왔다. 매일의 새로움을 즐기며 설레던 스무 살의 봄도 좋았고, 따스한 온기와 햇살을 만끽하며 누리는 지금의 여유로운 봄도 너무도 소중한 봄이다. 봄아, 천천히 좀 지나가 주련.

사업자가 대출의 과정을 모르게 하라

IBK 금융네트워크 플레이



IBK x 키즈니



IBK BBOX 대출통로

복잡한 사업자 대출
IBK가 쉬운 통로를 만들다

IBK대출통로BOX

복잡은 IBK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 잡(JOB)만!!

준법감사인 심의제 제2026-16038(2026.03.05) [유류가: 2027.03.02] - 대출원리금BOK관련 자세한 문의를 BOK고객센터(☎02-729-7633) 혹은 BOK고객센터(☎1566-2566)로 연락 바랍니다. -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AI × IBK

AIIBK



초개인화 서비스

압도적 데이터 처리 능력

AI의 혁신 기술과

기업금융의 노하우

국책은행의 신뢰도

65년 기업금융 전문성이 만나

내일을 창조하는
대한민국의 금융지능이 됩니다

세상에 없던 금융지능의 탄생

① 초개인화 서비스

② 기업금융 AI 고도화

③ AI 친화적 경영